

리아호나

그분의 놀라운 은혜,
10, 12쪽

왜 세미나리를 해야 합니까? 20, 46,
48쪽

부모 여러분! 시간을 내어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34쪽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세요,
58쪽





이태아폴리스(미국 미네소타 주) 미술원(MINNEAPOLISMINNESOTA, USA) INSTITUTE OF ARTS의 수집품(DANA MCKILLAN FUND)의 송인 이태 개재함. 복사 금지

부인하는 베드로, 게릿 반 혼소스트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누가복음 22:56~60, 62)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선지자의 간증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하고 보살피며 강화하십시오

특집 기사

- 12 필멸의 여정과 속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우리는 어떻게 속죄의 권능으로 강화되어 선행을 하며, 우리 자신의 개인적 욕구나 선천적 능력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 20 세미나리의 축복
브리타니 베아티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도움을 준 세미나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 세계 청소년.

- 26 개종자가 받은 부름
헬레나 하논엔
지부 반주자라는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만,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쁘다.

- 30 살아 움직이는 와드 평의회
라르네 건트
누가 와드 평의회에 참석하며, 와드 평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 본부 기사

- 8 4월 연차 대회 노트: 연차 대회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십시오
마이클 바버, 데이비드 마쉬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놀라우신 은혜
크리스틴 니콜 카돈

- 34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듣고 이야기할 시간을 내십시오
로즈메리 엠 워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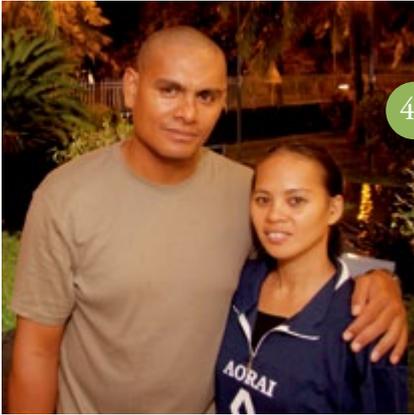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속죄에서 얻는 소망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표지
앞 그림: 나를 붙들지 말라. 미네르바 레이처트, 브리검 영 대학 미술 박물관의 허가로 게재함. 뒤 그림: 깃세마네 동산에 계신 그리스도, 칼 하인리히 블로흐.



42

42 블랙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애덤 시 올슨
'블랙'의 농구 사랑은 일종의 시험이자
축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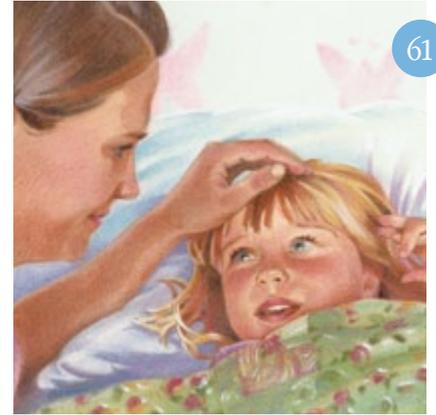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실마리: 옳은 일을
선택하라



48

- 46** 질의응답
혼자서도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세미나리에 가야 하나요?
- 48** 왜 세미나리입니까?
일곱 분의 선지자가 세미나리에서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다.
- 50** 에콰도르 정글 속 세미나리
조슈아 제이 퍼키
최근 개종자가 대부분인 새로운
지부에서 세미나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간증과 지식, 신앙을
심어 주었는가
- 52** 세미나리 다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여러분을 종교 교육원으로
초대합니다.
- 53**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디모데후서
3:16~17
- 54** 추락은 안 돼
애덤 시 올슨
지금 보이는 아주 작은 관심과 준비가
훗날의 큰 재앙을 방지할 수 있다.
- 57** 포스터: 경전을 탐구하라



61

- 58** 이야기 시간
힐러리 워킨스 레몬
조시는 학교에서 생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 기분이 나아졌다.
- 61** 그분은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패트릭 키아론 장로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2**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 64** 음악: 주 예수를 닮으려고
제니스 캡 페리
- 66** 혈연과 신앙으로 맺어진 자매들
헤더 위글리
어떻게 신앙을 강화하는지 밝히고
있는 루마니아 자매들
- 68** 특별한 증인: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69** 나의 복음 표준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물론경 경전 인물

2012년 4월호, 제49권, 제4호
리아호나 10484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유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룬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프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요시히로 기구무치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히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통 편집인: 수잔 배커, 라이언 카, 멜리사 매달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매리,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리아 맥클라한,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타케크,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커스, 켄 핀보로우, 폴 벤덴버그, 마리아 에이 위디스, 멜리사 켈레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킴블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힐클로,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엠 무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오, 콘니 바슬프 버트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할슨

통 관: 제546호, 제49권, 제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세르비아어, 체코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pril 2012 Vol. 36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이번 호의 일부 기사는 구주에 대한 간증과 그분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웹 사이트 JesusChrist.lds.org에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청소년

이번 호의 일부 기사는 세미나리의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20~25쪽과 46~53쪽 참조) 웹 사이트 seminary.lds.org에 접속하여 더 알아볼 수 있다.

어린이

"주 예수를 믿으려고"(64~65쪽 참조) 노래를 들으려면 웹 사이트 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34, 42, 58, 66

경전 공부, 53, 57, 68

교회 부름, 26, 30

기도, 41

몰몬경, 38

부활, 4, 61, 62, 70

선교 사업, 42

세미나리, 20, 46, 48, 50

소망, 80

속죄, 4, 12, 61, 62, 80

순종, 54

연차 대회, 8

영감, 39, 40

예수 그리스도, 4, 10, 12, 61, 64, 70

은혜, 10, 12

음악, 26, 64

의사소통, 34, 58

종교 교육원, 52

준비, 54

평의회, 30

표준, 69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선지자의 간증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계의 분명한 외침”이며, “부활은 개인과 모든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화평을 가져다줍니다.”(빌립보서 4:7 참조)라고 말씀했다.¹

다음 발췌문에서 몬슨 회장은 구주의 부활에 대한 간증과 감사를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상으로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도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한다.

필멸의 생활 너머에 있는 삶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하려고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필멸의 생활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담의 타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제 영혼 깊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²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극심한 고통이나 질병에 시달릴 때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이 자비의 천사처럼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죽음을 행복의 적으로 여깁니다.

언제나 사망의 어두움은 계시된 진리의 빛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이 확신,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확증은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 확실하게 약속하셨던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³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겻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고통과 고뇌는 다 씻겨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확실해졌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생긴 결과는 원래대로 돌려졌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텅 빈 채 남아 있던 무덤은 옴이 던졌던,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께 선언합니다. 장정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된 진리에서 발하는 빛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슬픈 시기에 우리는 첫 부활절 아침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⁴라는 천사의 말에서 커다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고

“우리는 웃고, 울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



한 사람, 즉 나사렛 예수와 그분의 사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은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

저는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특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소리 높여 간증드리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며,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⁵

개인적 간증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신 성스러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산 지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⁶ ■

주

1. “그가 살아났느니라”,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7쪽.
2. “헤어지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14쪽.
3. “지금이 바로 그때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8쪽; 또한 요한복음 11:25~26, 14:27 참조.
4. “주님 다시 부활했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89, 90쪽; 또한 욥기 14:14; 마태복음 28:6 참조.
5.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4, 25쪽.
6.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7쪽.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몬 슌 회장의 말씀을 나눈 후 부활절의 참된 의미에 관한 그의 간증을 언급한다.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가 이 진리를 간증한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간증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아빠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모건 웨벡케

아빠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쉽게 용서해 주셨다.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셨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는 점도 분명히 하셨다. 나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다.

그런데 내가 6학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그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 가정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힘들 때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인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분노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러다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경전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는 엄마가 원하셨기 때문에 다니는 곳뿐이었다. 나는 애써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멀어지려 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청년 야영을 가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좋았지만 나는 여전히 경전을 읽지 않았다. 마지막 날 밤에 간증 모임을 했는데 나는 그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다. 바로, 영이었다. 일어서서 간증하는 청년들에 대해 감탄을 했지만 나에게서는 그런 간증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일어서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입을 열었다. 나는 청년 야영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가 참됨을 안다는 말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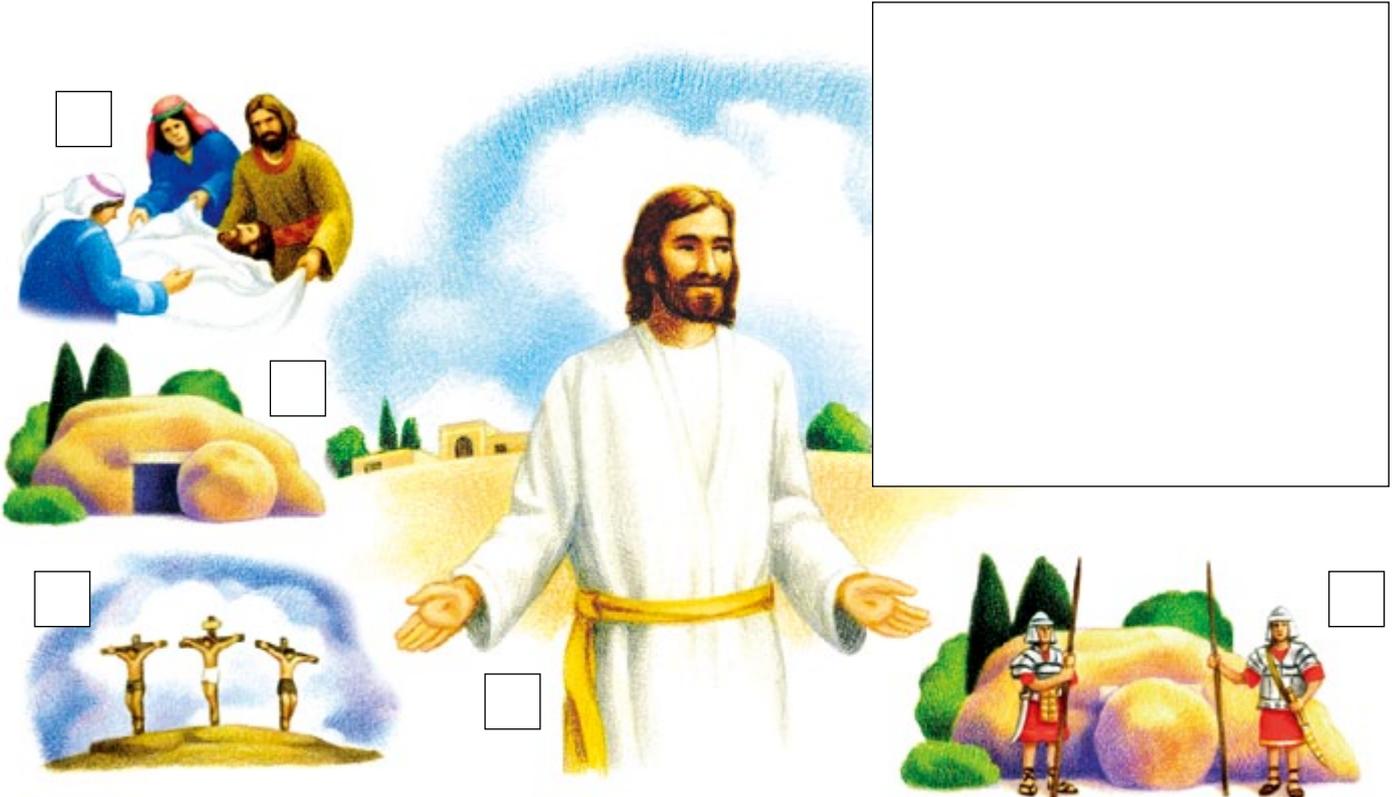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다. 이 경험 덕분에 나는 구주의 속죄와 부활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문 손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세요. 각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네모 안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큰 네모 안에 가족을 그려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에 알맞도록,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신앙, 가족, 구제

사랑하고 보살피며 강화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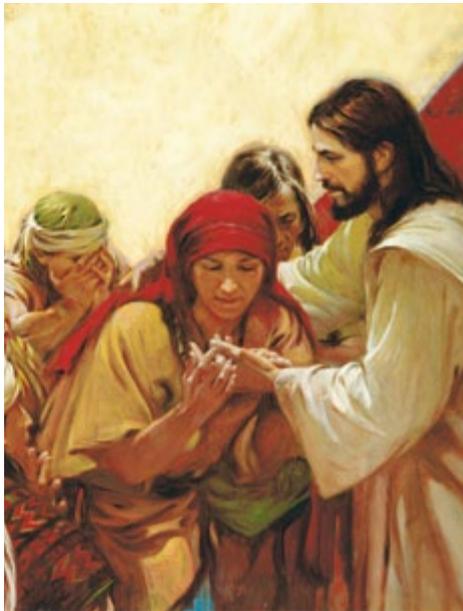
구 주께서 그러셨듯이 방문 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

줍니다.(제3니파이 11:15 참조) 우리가 방문 교사로서 훌륭하게 봉사했다면 방문을 받는 자매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방문 교사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었어.
- (2) 방문 교사는 나와 내 가족을 진정으로 보살피 주고 있어.
- (3)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방문 교사는 요청하지 않아도 도움을 줄 거야!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 자매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강화할 수 있을까요?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7장에는 방문 교사들이 자매들을 잘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아홉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그 자매와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 그 자매와 가족을 알기 위해 영감을 구한다.
-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위안과 힘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 방문, 전화 통화,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친절한 행위를 통해 자주 접촉한다.
- 교회 모임에서 인사한다.
- 응급 상황이나 아플 때 등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도와준다.
- 경전과 방문 교육 메시지를 활용하여 복음을 가르친다.
- 선한 모범으로 영감을 준다.



- 자신이 한 봉사와 그 자매의 영적, 현세적 복지에 관해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성구에서

누가복음 10:38~39; 제3니파이 11:23~26; 27:21

주

1. 줄리 비 벡, “내 손녀(손자)들이 상호부조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13쪽 참조.
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12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19~120쪽.
4.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Oct. 15, 1856, 252.
5.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6~36쪽 참조.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방문 교육은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대로, 전 세계 후기 성도 여성들에게 사랑하고 양육하고 봉사하는 방법,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신 연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²

최근에 미망인이 된 한 자매는 방문 교사들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들은 내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를 위로했고, 저와 함께 울며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 처음 몇 달간 외로워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제가 절망의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³

현세적인 일을 돕는 것 역시 성역의 일종이다. 185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브리검 영 회장은 손수레 개척자들이 435~595킬로미터 떨어진 깊은 눈밭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 후기 성도들에게 그들을 구조하라고 요청했으며 “그와 같은 이른바 현세적인 일들을 반드시 보살피도록 했습니다.”⁴

루시 미저브 스미스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다. 태버넌클에 있던 여성들은 “페티코트[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입었던, 당시 유행하던 큰 속치마-웁긴이]와 스타킹을 그 자리에서 벗어서 짐마차에 실었고, 기타 모든 여분의 물건을 모아서 추위에 떠는 성도들에게 보냈다.” 자매들은 작은 손수레에 초라한 살림살이를 끌고 도착할 성도들을 위해 이불과 옷가지를 쉬지 않고 모았다. 손수레 부대가 도착할 즈음에는 마을에 있는 한 건물에 “그들에게 지급할 물품이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했다.⁵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 내가 자매들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연차 대회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십시오

마이클 바버, 데이비드 마쉬
교과 과정부

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향연까지 마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차 대회에서 받은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때 그 향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46년에 해롤드 비리(1899~1973) 회장님은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이 “다음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라고 하시며 “이런 것은 이날에 이 백성에게 계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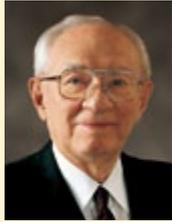
1988년,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연차 대회 특집회가 여러분의 표준 경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며 자주 참조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며 리 회장님의 말씀을 되풀이 하셨습니다.²

2008년 10월 연차 대회를 마칠 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연차 대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연차 대회 동안 들었던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들은 다음 달 엔사인과 리아호나 잡지에 실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³

연차 대회 메시지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더 의미 있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 받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몇 가지





기록하고 숙고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 중에서 계속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나 단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기록해서 숙고하고 깊은 의미를 음미하며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든 비 힝클리, “겸손하고 상한 심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02~103쪽.

제언이 여기 있습니다.

영감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연차 대회를 시청하거나 청취하거나 입을 때에도 여러분은 하늘에서 오는 영감을 받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연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에 관계없이 “메시지의 내용과 성신의 증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허용할 경우에만 마음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영감을 받으려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정신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입니다.

1. 방해받지 않고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한다.
2. 기도로 하늘의 인도를 구한다.
3.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나 관심사를 목록으로 적어 본다.

메시지를 이해하십시오.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은 가르치고, 제안하고, 권고하고, 경고하며 간증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연구 방법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 **질문한다.** 예를 들어, 주께서는 내가 이 메시지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씀은 복음 원리나 경전 구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강화시켜 줍니까? 복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일화는 무엇이며,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 **요점을 적는다.** 연사가 전달하려는 요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모임별로 구분하고,

각 모임에서 제시되는 중심 내용을 설명하며 요약해 보십시오.

- **말씀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한다.** 교리, 경전, 일화, 경고, 목록, 간증, 행하라는 요청, 권고에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들과 같은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 **말씀을 한 번 이상 연구한다.** 복음 진리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연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깨달음을 적어 둡니다.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한다면, 그 메시지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배운 내용은 가족과 직장,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생각이 떠올랐다면 잊지 않기 위해 적어 두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연차 대회는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시간입니다. 연차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표준 경전 이외의 어떠한 문장이나 서책도 여러분의 개인 소장 도서 책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 경전에 수사학적인 탁월함이나 어구가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개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⁵ ■

주

1. Harold B. Lee, Conference Report, Apr. 1946, 68.
2. Ezra Taft Benson, “Come unto Christ, and Be Perfected in Him,” *Ensign*, May 1988, 84.
3. 토마스 에스 본슨,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6쪽.
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7, 20쪽.
5. Spencer W. Kimball, *In the World but Not of It*,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May 14, 196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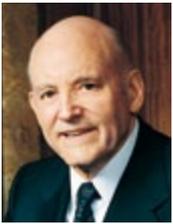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놀라운 은혜

크리스틴 니콜 카돈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한다.



주의 힘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한 발씩 진보해 나아가며, 힘을 구하고, 우리의 태도를 개선시켜 나가면, 우리는 선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제하고 수양하며 노력하고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 “영성을 키움”, 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38쪽.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은혜에 대해 자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은혜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혜에 관한 청년 공과나 주일 학교 공과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서 “Amazing Grace(놀라운 은혜)”를 부른 것이 생각났다.

놀라운 은혜!(그 얼마나 감미로운 말인가!)

나와 같은 불행한 자들을 구하셨네!
한때는 잃어버려졌던 나를 다시 찾았으니
앞 못 보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네 가지 능력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활, 구속, 치유, 그리고 강건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각 능력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다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추억에 잠겼다.

고등학교 당시 합창 대회에 참가하려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출발을 코 앞에 두고 목이 부어서 대회에서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할 수 없거나, 노래를 하더라도 아파서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신권 축복을 부탁하고서 회복되길 기도하며 다음 날을 보냈다.

당시 대회에서 목이 다 나아서 “Amazing Grace”를 불렀던 나는 전날 나를 치유한 바로 그 힘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구주의 속죄가 그날 나를 축복했으며 그분의 은혜는 치유의 근원이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앨마서 7:11)

고등학교를 마치고서 나는 다수의 신입생처럼, 집을 떠나서 다섯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운 교과 과정으로 몹시도 힘이 들었다.

바로 그때 나는 그리스도 은혜의 강건케 하는 힘과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매일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에 의지했다. 학창 시절 내내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강건케 하고 가능하게 하는 힘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주님의 은혜가 가지는 또 다른 두 가지, 즉 부활과 구속의 충만함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는 나를 치유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 노력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때, 내가 가진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5:23) ■

주

1. John Newton, "Amazing Grace," *Olney Hymns*(1779), no.41.

주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번 호 12쪽 “필멸의 여정과 속죄”라는 기사에서 위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해 준다.

- “주님은 그분의 속죄와 성신의 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 “개인의 의지력, 개인적인 결심과 동기, 효과적인 계획과 목표가 필요하지만, 이 필멸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에는 그것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니파이후서 2:8)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 “우리는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강화되어 선행을 하며 선하게 살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욕구나 선천적 능력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화하며 도움을 주거나 치유를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일지에 적거나 가족과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데 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구주의 복음이 가지는 위대한 목적을 간결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 나쁜 사람을 좋게, 좋은 사람은 더 좋게 만들며, 인간의 품성을 바꾸는 것입니다.”¹ 그렇듯 필멸의 여정은 나쁨에서 좋음을 거쳐 더 좋음으로 진보하는 것이며, 커다란 심성의 변화를 겪음으로써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5:2 참조)

필멸의 여정과 속죄

우리는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강화되어 선행을 하며 선하게 살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개인적 욕구나 선천적 능력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쁨에서 좋음을 지나 더 좋음으로 가는 길을 여행하며 우리 마음을 바꾸고자 애쓸 때 몰몬경은 우리의 지침서가 되어 줍니다. 베나민 왕은 필멸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행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속죄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3:19; 사체 추가)

저는 구체적으로 두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라는 부분입니다. 나쁨에서 좋음으로 가는 여정은 우리 각자가 지닌 육에 속한 남자나 육에 속한 여자를 벗어 버리는 과정입니다. 필멸의 삶에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몸을 만든 구성 요소 자체가 타락한 육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죄와 타락, 죽음을 경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 육적인 욕망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법하고 죄를 저질러 실수를 범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라는 구속의 권능을 통해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가 되며”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을 더 좋게” 하는, 다시 말해 성도가 되어 가는 지속적인 인생 여정의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가는 이 과정, 즉 우리 인생 여정 제2부는 우리가 충분히 가르치거나 연구하지도 않고 있으며,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속죄가 지니는, 강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권능보다는 구속하며 정결하게 하는 권능에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며, 그것은 그리스도 교리의 기본 토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속죄와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살고자 하신다는 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구속의 권능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속죄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적이고, 합당하며, 양심적인 선한 남자와 여자 즉, 더 나아지며 더욱 충실하게 봉사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훈련, 의지와 순수한 용기라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가는 여정을 헤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주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악을 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선하게 살며 선행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속죄는 우리가 악을 극복하고 피하며,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뻘에서 좋음을 거쳐 더 좋음으로 발전하며 우리의 성품 자체를 바꾸는 필멸의 여정 내내 구주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속죄의 구속 권능과 가능하게 하는 권능이

서로 별개이며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속죄의 특질은 긴밀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필멸의 여정에서 필수인 두 가지 요소, 즉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악을 극복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속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에는 개인적 의지와 결심, 동기, 효과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 모두 필요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8)

은혜와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

경전 안내서에 따르면 은혜(*grace*)라는 단어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뜻을 내포하며, 우리는 이 단어가 경전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신약, 특히 바울의 기록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주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도움이나 힘을 얻는 신성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일어나 영원히 사는 것, 즉 인류가 불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속죄 희생으로 가능해진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각 개인이 자기 힘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훌륭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힘과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 덕택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가능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한 이후에 그 권능을 통해 영생과 승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²

은혜는 우리 각자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늘 도움, 혹은 거룩한 도움입니다. 우리는 가능하게 하는 속죄의 권능으로

강화되어 선행을 하며 선하게 살 수 있으며, 자신의 소망이나 선천적 능력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경전 공부를 하는 동안 은혜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표현을 적어 넣곤 합니다. 가령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이는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힘을 제대로 이해했으며, 그 권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능력을 더 잘 깨닫게 될 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더욱 넓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자신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니파이는 구주의 가능하게 하는 힘을 제대로 알고 그에 의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리하이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마엘과 그의 권속이 여행에 합류하도록 권유했던 사실을 떠올려 봅시다. 니파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광야로 여행을 했던 일행 중 일부와 레이맨은 모반을 했으며, 니파이는 형제들에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때, 함께 여행 중이던 형제들은 끈으로 니파이를 묶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니파이의 기도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니파이전서 7:17; 사체



니파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간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니파이후서 25:23) 우리가 경전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가능하게 하며 강화하는 힘”이라고 적어 넣는다면 이 속죄의 핵심적 특징에 대해 더 많이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들과 그 의미

필멸의 여정은 나쁨에서 좋음을 거쳐 더 좋음으로 감으로써 우리의 품성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문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자와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여행 과정에서 속죄의

추가)

만약 제가 형제들에게 묶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니파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니파이가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을 이미 알고 이해했으며, 체험을 해 보았기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니파이를 동여뒀던 끈이 그의 두 손과 손목에서 저절로 마법처럼 풀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이 타고난 능력 이상의 끈기와 개인적 힘으로 축복을 받아 “주의 힘을 입고”(모사이야서 9:17) 애를 써서 끈을 당기고 비틀었을 때 마침내 말 그대로, 끈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화가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객체보다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14 참조)

물론경에서 엘마와 그의 백성이 앰울론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례를 살펴봅시다. 주님의 음성이 역경에 처한 이 선한 백성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모사이야서 24:14~15; 사체 추가)

이 일화에서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바뀐 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받던 박해의 고난과 어려움은 금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마와 그의 백성들은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힘이 커져서 지고 있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선한 백성은 속죄로 힘을 받아 주체로서 행동을 하고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힘을 입어” 엘마와 그의 백성은 안전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필경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엘마와 그의 백성 이야기가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의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변은 모사이야서 3장 19절과 모사이야서 24장



15절을 비교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며]”(모사이야서 3:19; 사체 추가)

우리는 나쁨에서 좋음을 지나 더 좋음으로 움직임으로써 필멸의 여정에서 진보하며,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육에 속한 남자나 육에 속한 여자를 벗어 버리고, 성도가 되고자 애를 쓰며

주님의 음성이 역경에 처한 엘마와 그 백성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품성 자체를 바꾸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속성들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더욱 잘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더욱 기꺼이 복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제 모사이아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자질들을 엘마와 그의 백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품성과 비교해 봅시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모사이아서 24:15; 사체 추가).

저는 그 두 구절에서 묘사하는 속성들이 서로 현저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엘마의 선한 백성이 구주이신 그리스도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엘마서 14장에 담긴 엘마와 엠올레크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이 사건에서 많은 충실한 성도들이 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며, 엘마와 엠올레크는 옥에 갇혀 매를 맞습니다. 엘마가 감옥 안에서 기도를 드릴 때 올렸던 이 간구를 살펴봅시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좇아 우리에게 힘을 주사,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엘마서 14:26; 사체 추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한 엘마의 믿음과 이해가 그의 간구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의 결과에 주목합시다.

“저들[엘마와 엠올레크]을 결박한 줄을 끊으며, 무리가 이를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멸망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라.

또 엘마와 엠올레크는 옥에서 나왔으나,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의 신앙을 좇아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이라.”(엘마서 14:26,28; 사체 추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선한 백성이 악에 대항하여 싸우며, 더욱 나아지고자 애를 쓰고, “주님의 힘을 입어”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고자 할 때, 가능하게 하는 힘이 분명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마서 31장에서 엘마는 배도한

조랙인들을 되돌리려고 선교 사업을 떠납니다. 그들은 ‘래미움프롬’이라는 단을 세웠으며, 교만으로 가득 찬, 미리 정해진 기도를 올렸습니다.

힘을 간구하는 엘마의 개인 기도를 주목해 봅시다. “주여, 나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게 임할 이 고난들을 인내로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겠나이까.”(엘마서 31:31; 사체 추가)

엘마는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간 동반자들에게도 비슷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임할 고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겠나이까.”(엘마서 31:33; 사체 추가)

엘마는 고난을 없애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다. 그는 스스로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상황을 바꾸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엘마서 31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사, 그들이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하셨더라. 이제 이는 엘마의 기도대로였나니, 이는 그가 신앙으로 기도한 연고였더라.”(38절; 사체 추가)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다. 하지만 엘마와 그 동반자들은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축복을 받고 강화되어 “그들이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 교훈이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능하게 하는 힘의 사례가 경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더블유 존스는 1830년 미국 미주리 주에서 태어나 185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1856년에 그는 와이오밍의 심한 눈보라로 고립된 손수레 부대를 구조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구조단은 재난에 처한 성도들을 찾아내 가능한 응급 처치를 했으며, 병약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로 호송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곧이어 다니엘과 몇몇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뒤에 함께 남아 손수레 부대 소유물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동료들에게 남아 있는 식량과 물자는 넉넉지 않았고, 급속히 고갈되었습니다. 다니엘 존스는 개인 일지에 그 후 일어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냥감은 금세 고갈되어 더 이상 잡을 게 없었다. 우리는 한결같이 형편 없는 고기를 먹었다. 그런 것을 먹어 봐야 배만 고플 뿐이었다. 마침내 모든 음식이 떨어졌으며, 이제 동물 가죽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리해 보았다. 많은 양을 일체의 양념도 없이 조리하여 먹었고, 결국 모두가 배탈이 났다……

상황은 암담했다. 주린 소에서 벗겨낸 빈약한 가죽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형제들은 불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의지했다. …… 마침내 나는 그 조리법에 대해 영감을 받아 부대원에게 알려 주었다. 즉, 털을 불로 그슬리고 나서 문질러 벗겨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가죽을 삶으면서 생긴 나쁜 맛을 없애거나 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털을 긁어내고서 한 시간쯤 충분한 양의 물에 넣어 끓인다. 가죽의 모든 아교질이 빠지면 그 물을 쏟아 버린다. 곧이어 가죽을 찬물에 깨끗이 씻고 문지른다. 그 다음 젤리 상태가 되도록 끓이고 나서 식힌다. 곧이어 약간의 설탕을 뿌리고서 식사를 한다. 이것은 무척 고된 일이었지만 그 밖에 다른 대안은 없었으며, 굶주리는 것보다는 나았다.

우리는 우리 위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배가 이 음식에 적응하도록* 주님께 간구했다. …… 이제 모두가 정찬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이 두 번째 시도가 있기 전 사흘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약 6주간 이 호사스러운 정식을 즐길 수 있었다.”³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무언가 다른 먹거리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소, 아니면 메추라기라도 보내 주세요.” 제 위장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취하는 음식에 적응하도록 기도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더블유 존스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강화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엘마와 그의 백성이, 앰올레크와 니파이가 강화된 것처럼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다니엘 더블유 존스는 기도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강화되어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자렌지와 휴대 전화, 에어컨 기능이 있는 승용차와 안락한 집이 있는 이 세상, 이 편리한 후기에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베드나 자매는 놀랄 만큼 신앙심이 깊고 유능한 여성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없이 행하는 모범을 통해 강화하는 권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깨우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속적이고도 심한 입덧을 참으면서 견뎌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3번의 임신 기간 모두, 각각 여덟 달 동안 날마다 입덧을 앓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며 입덧이 나아지기를 기도했지만, 결코 우리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강하게 되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후기 성도 여성이 선지자 권고에 따라 자녀 양육과 가족에 최고 우선 순위를 둘 때 겪어야 하는, 일반 세상에서 던지는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그녀의 모습을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이 값진 교훈을 깨우치도록 도와준 베드나 자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주는 알고 계시며 이해하십니다

엘마서 7장에서 우리는 구주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앨마서 7:11~12; 사체 추가)



아울러 그분은 최후의 값을 치르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완벽하게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번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손길을 뻗어 어루만지거나 구원하며 말 그대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도록 해주십니다. 아울러 그분은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존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헤쳐 나가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희생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에 대해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구속 권능과 그분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권능은 실존하며 우리 각자가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증합니다. 진실로 이 필멸의 여정을 헤쳐 나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힘을 입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

2001년 10월 2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연설에서 발췌. 웹 사이트 speeches.byu.edu에 방문하여 영어 전문을 읽을 수 있다.

주

1. FranklinD. Richards, Conference Report, Oct. 1965, 136-37 참조. 또한 DavidO. McKay, Conference Report, Apr. 1954, 26 참조.
2. 경전 안내서, “은혜”; 사체 추가.
3. DanielW. Jones, *Forty Years among the Indians*(n.d.), 57-58.

우리가 이 필멸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육체적 아픔이나 영혼의 곤고, 영적 변민이나 나약함을 구주께서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괴롭히는 정서적 환난과 고통, 불평등과 불공평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육체적 아픔이나 영혼의 곤고, 영적 변민이나 나약함을 구주께서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약해졌을 때 이렇게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이해하랴, 어느 누가 알아줄까?’ 어쩌면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하게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앞서 우리 짐을 지시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세미나리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세미나리의 축복

브리타니 베아티
교회 잡지

여러분만이 세미나리에 참석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버스나 카누, 또는 자전거를 타고 수업을 들으러 오면서 세미나리를 생활의 일부로 만듭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먼 거리를 여행하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저녁에 나가며, 그 밖의 청소년들은 주중에 며칠 동안 집에서 공부합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데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전 세계 청소년들은 세미나리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미나리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세미나리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세미나리는 왜 여러분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 중에는 후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신 다음과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 세미나리는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현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¹
-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²

-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쌓게”³ 합니다.
- 세미나리에서 “여러분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교리를 배우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⁴
- “여러분의 복음 지식이 증가되고 신앙이 강화될 것이며,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우정을 쌓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합니다.”⁵
- “이 일은 …… 복음에 대한 연구를 크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취와 우리 주위에 만연한 악에 대항할 도덕적인 힘을 줍니다.”⁶
- 세미나리는 “선교 사업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⁷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종종 여러분이 즐겨 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필리핀에 사는 일라이저 부가용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동안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2등을 한 일라이저는 마지막 학년에서 1등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전 해까지 참석해 왔던 세미나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라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상을



평생 가는 축복

“오래 전, 저는 새벽반 세미나를 가르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일 동안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세미나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졸린 눈을 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잠을 깨워 달라는 듯이 흐느적거리며 교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영적인 말씀을 한 뒤에 보면, 경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두 눈은 초롱초롱해져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시간에 토론을 끝내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더욱 자신감을 얻고,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간증도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의 한 가게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가르쳤던 학생 두 명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둘은 이제 서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쁜 네 아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는 그들이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세미나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른 아침에 갖는 세미나 반에서 특별한 결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진리를 받음”,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62쪽

[바라보는데] 가까이에 있던 책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4대 경전 합본과 세미나리 공책과 교재였습니다. 마음 깊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지?’

일라이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녀는 세미나리에 충실히 참석하고 학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시간을 잘 안배할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년 말에 일라이저는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읽는 졸업생 대표가 되었고 대학교 장학금도 탔습니다.

미국 앨라배마 주의 스펜서 더글러스는 몇 가지 사교 행사를 포기하고 세미나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미나리를 시작한 첫 2년 동안 그는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으며, 마지막 2년 동안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스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으므로 밤 늦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일찍 자지 않는다면 다음날 아침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온전히 배울 수 없거든요.” 스펜서에게 그것은 단지 세미나리 반에 얼굴을 내미는 것만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 배울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것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⁸ 이 말씀은 여러분의 계획표에 세미나리를 어떻게 우선시할지를 결정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권고입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합니다

세미나리는 또한 오늘날 여러분이 회원 선교사로서, 그리고 미래에 전임 선교사로서 선교 사업을 훌륭하게 준비하는 데 기여합니다. 페루의 프랑코 후아만 쿠리누키는 세미나리에서 하는 경전 공부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세미나리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홍수 철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카누를 타고 간 뒤 진흙탕 속을 걸어야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세미나리를 마치고 나면 종교 교육원 수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에서 계속 발전할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세미나리는 경전에 대해 배우고 중요한 성구를 암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런 일들은 그가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온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세미나리에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경전 공부 이상으로 많은 것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캐머런 리즈니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세미나리는 영적인 면만 아니라 학업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라고 캐머런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두뇌 회전도 잘 돼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새벽 6시에 수학 공부하러 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주님께서 시험을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지만, 세미나리에 간다면 더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라고 캐머런은 말합니다.

물론 세미나리는 캐머런이 간증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간증은 세미나리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네 살 어린 나이에 사실상 저는 복음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달만 더 갔더라면 교회를 완전히 포기했겠죠.” 그러나 한 친구가 세미나리에 참석하도록 권하자 캐머런은 그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일 학교와 신권 공과에도 참석했어요. 그런 일이 쉬워졌고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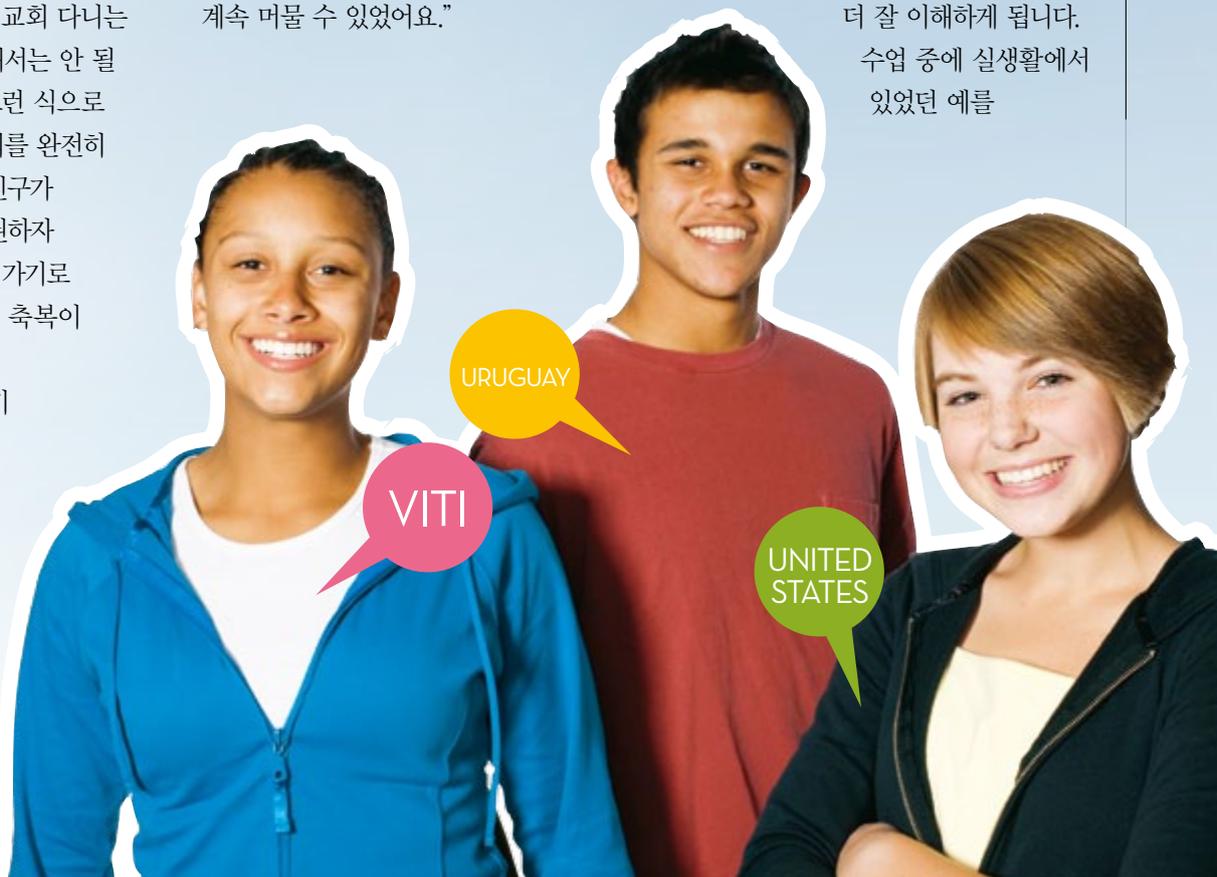
마침내 저는 혼자 힘으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라고 캐머런은 말합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한 지 두 달 후에 캐머런은 감독과 접견하고 아론 신권 교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캐머런은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세상의 유혹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미나리를 계속하면서 저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에 더 쉽게 대처하게 되었어요. 사방이 죄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그런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얻게 된다고 간증드릴 수 있어요. 세미나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영적 방패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련과 유혹이 제 길을 가로막았지만 세미나리 덕분에 험악하고 좁은 길에 계속 머물 수 있었어요.”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세미나리에서는 또한 믿음이 같은 다른 십대들과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카 첼리스코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도덕 표준이 비슷하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 영적으로 고무됩니다. 질문이 있을 때에는 세미나리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해요. 제 생각과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강해져요. 함께 경전을 읽고 그들의 영적 만족에 대해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우크라이나의 크세니아 곤차로바도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경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수업 중에 실생활에서 있었던 예를





세미나리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 드레드 베니언은 1912년, 그래니트 세미나리에 등록된 첫 번째 세미나리 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세미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이 세미나리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축복들을 자녀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상당한 재정적 희생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유타로 이사했습니다.”(C.Coleman, *History of Granite Seminary*, 142쪽에서 인용)

교회 교육의 중요성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1971년에 교회 소유 대학인 릭스 대학(현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학장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1980년에서 1985년까지, 또다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교회 교육 총감으로 봉사할 때에도 아이어링 가족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이 제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최근에 한 무리의 청소년들에게 세미나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서 중요한 주제가 드러났습니다. 즉, 세미나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는 모든 주제가 다 중요합니다. 매년 여러분이 4대 경전 중 한 권에 집중할 때 그 중심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⁹

다음은 몇몇 십대들이 세미나리를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 “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급한 이런 말씀들을 읽고 제가 구주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며,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시는 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목숨을 바쳐 제 아픔을 대신 겪을 만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 “세미나리는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세미나리 수업을 통해 영을 느끼고 강화되어서, 그 날 힘든 일이 닥칠 때라도 구주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옳은 일을 수호하겠다는 자신감이 더욱 커집니다.”

- “저는 개종자인데 침례 받기 전에 세미나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리가 없었다면 제가 침례를 받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미나리가 아니었다면 제 삶에 구주가 계시지 않았을 것이며,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 삶에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그분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은 영원히 제 삶과 미래의 제 아이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매일 세미나리에 가서 주님의 가르침과, 저에 대한 그분의 크신 사랑과, 어떻게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배움으로써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성구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세미나리는 매일 아침, 일상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 “저는 세미나리를 통해 경전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경전을 읽는 맛을 알 뿐만 아니라 읽은 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제가 배운 교리와 원리들은 사랑이 충만한 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이 간증은 제 남은 삶 동안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얻는 많은 축복들을 생각해 볼 때 온 세상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계획표에 세미나리를 우선으로 기입하는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Teach the Scriptures*(교회 교육 기구 교사들에게 전한 말씀, 1977년 10월 14일, 3쪽).
2. 엘 톰 페리, “표준을 높임”,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48쪽.
3. 리차드 지 스코트,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천하십시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1쪽.
4. 고든 비 힝클리, “참되고 충실하라”,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93쪽.
5. 고든 비 힝클리, “신앙으로 가능케 된 기적”,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82쪽.
6. 고든 비 힝클리, “교회의 형편”,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53쪽.
7. 에즈라 테프트 벤슨, “복음을 나누어야 할 책임”,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9쪽.
8. 맬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쪽.
9. David A. Bednar, “Conclusion and Testimony,” *Welcome to Seminary 2010-2011*, seminary.lds.org/welcome.

세미나리 역사

세미나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 봅시다.

- 1888년: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방과 후 종교 반을 포함한 교회 교육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교회 교육 위원회 조직을 감독하다.
- 1912년: 첫 번째 세미나리 휴식반이 조직되어 총 7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시간 중 한 시간을 내어 세미나리에 참석하다. 수업은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래니트 고등학교 건너편 교실에서 열렸다.
- 1925년: 등록 학생 수가 만 명에 이른다.
- 1948년: 캐나다에서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캐나다는 미국 밖에서 세미나리를 개설한 최초의 나라다.
- 1950년: 캘리포니아에서 세미나리 매일 반(이전에는 “새벽 반”이라 불렀음)이 조직되어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집회소에서 모이다.
- 1958년: 등록 학생 수가 5만 명에 달하다.
- 1958년: 멕시코에 처음 소개되면서 중미에서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 1962년: 핀란드와 독일에 처음 소개되면서 유럽에서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 1963년: 일본에 처음 소개되면서 아시아에서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 1965년: 등록 학생 수가 10만 명에 이른다.
- 1967년: 시골 지역에서 세미나리 가정학습 반이 시작되어 학생들이 주중 4일 동안 가정에서 공부하고 매주 하루는 함께 모이다.
- 1968년: 호주에서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 1969년: 브라질에 처음 소개되면서 남미에서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 1972년: 남아프리카에 처음 소개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 1983년: 등록 학생 수가 20만 명에 이른다.
- 1991년: 등록 학생 수가 30만 명에 이른다.
- 2012년: 전 세계적으로 134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7만에 달하는 학생들이 세미나리에 등록하다.



개종자가 받은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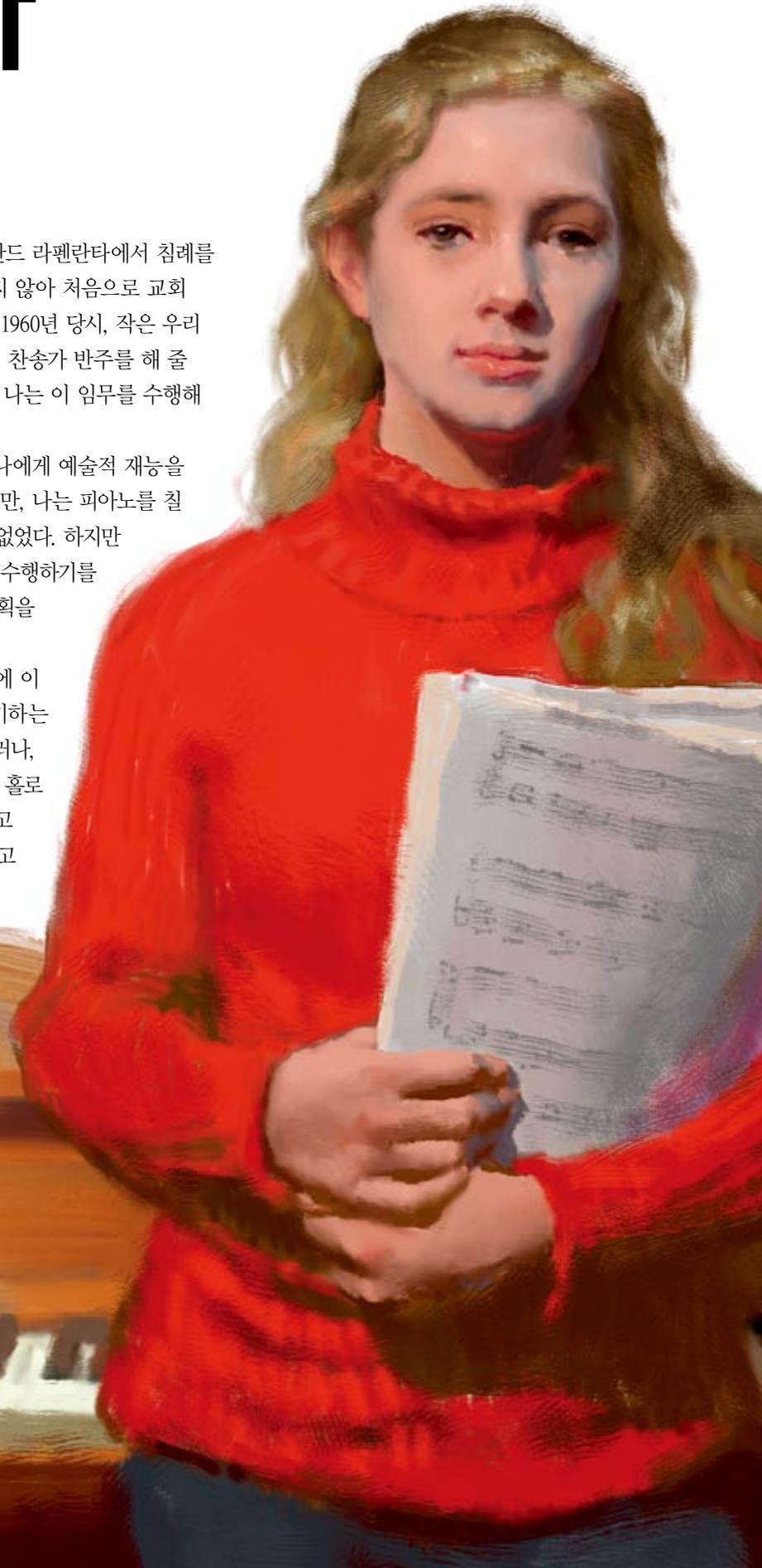
헬레나 하논엔



나는 열 살 때 핀란드 라펜란타에서 침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교회 부름을 받았다. 1960년 당시, 작은 우리 지부에서는 성찬식 시간에 찬송가 반주를 해 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고 나는 이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 어머니는 오빠와 나에게 예술적 재능을 추구하라고 늘 격려하셨지만, 나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고 집에 피아노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내가 부름을 수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가정의 밤 시간에 이 부름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우리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계셨기에 피아노를 구입하고



나는 새로운
개종자였고
피아노를 칠 줄
몰랐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부
피아노 반주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교습비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우리 가족이 치른 첫 번째 희생은 재정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버스 대신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오빠인 마티는 용감했으며 눈이나 얼음 위에서도 자전거를 아주 잘 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옷 사는 것을 대부분 포기했고 바느질을 배웠다. 또한 검소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시골에 계시는 조부모님 댁 근처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으며, 겨울에 먹을 음식을 저장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스위스에 있는 성전에 가시거나 집 가까운 곳에서 소풍이나 야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휴가'가 되었다.

우리 가족이 치른 두 번째 희생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집안일을 분담했고 다른 활동이나 숙제 시간도 조정하여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내었다. 우리가 희생하며 힘들게 노력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가 또래 아이들처럼 말쑥을 부릴 겨를이 없었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 사실 나의 부름은 내가 건반을 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 가족의 부름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학교 음악 선생님께서서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종이 건반과 교회 피아노로 연습을 했다. 피아노 선생님이 이사가실 때 우리는 그분의 피아노를 구입했고, 나는 그 지역의 저명한 피아노 선생님께서서 배우게 되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찬송가를 배웠고 지부 음악 지휘자와 함께 수없이 연습했다. 이따금 틀린 음이 나와도 모두가 나를 격려해 주었다. 피아노 선생님은 내가 곡을 완전히 배워서 외우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 것을 알고는 경악하셨다. 하지만 음악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라도 연주하는 것이 더 나왔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피아노를 배우러 갔고, 겨울에는 걸어가거나, 가능할 경우에는 스키를 타고 갔다. 일요일에는 한 시간 일찍 도착해서 연습을 하려고 혼자 걸어서 교회 모임에 갔다. 나는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에만 버스를 타기로 결심했다. 비나 눈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걸어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찬송가들이 나와 함께했으므로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나는 걸으면서 개척자들과 함께 평원을 가로질렀고("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참조), 시온의 높은 산을 올랐으며("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참조), 결코 비틀거리지 않을 청소년들과 함께 서 있었다("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참조). 비록 나와 우리 가족은 러시아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핀란드 동부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였지만, 그런 지지가 있었기에 나는 절대 용기를 잃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주 실력은 늘어났고 단지 정확한 음을 치기보다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임에서 영이 함께할 수 있는 음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배웠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복음에 대한 간증이 음악을 통해 왔다는 것이다. 어떤 의문이 들 때면 여러 찬송가의 메시지와 가사와 그 느낌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복음 원리와 의식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배우면서 그것이 참됨을 알았다.

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한 나의 결심이 시험을 받게 된 어느 특별한 날을 기억한다. 나는 열네 살이었고, 수영을 무척 좋아해서 수영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꾸던 때였다. 일요일에는 대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나는 꾸준히 발전했다. 마침내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다가오자



코치는 나에게 특별 훈련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 훈련은 매주 일요일 아침 주일학교가 열리는 시간에 있었다. 나는 주일학교를 빠지고 연습에 갔다가 저녁에 하는 성찬식 시간에 맞게 교회로 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버스비를 모았고 모든 계획을 마쳤다. 첫 훈련이 있기 전 토요일에 어머니에게 내 계획을 말씀드렸다.

어머니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역력했으나, 어머니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배웠으므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는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찬송가, 163장)라는 가사가 떠나질 않았다. 그 가사는 고장난 음반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요일 아침이 되자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교회에 꼭 갈 거라는 믿음을 심어 주고 싶어서 한 손에는 수영용품 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보가 든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로 나갔다. 공교롭게도 수영장으로 가는 버스 정류소는 내가 서 있는 길 이쪽 편에 있었고, 집회소로 가는 버스 정류소는 길 건너편에 있었다. 나는 기다리면서 짜증이 났다. 꺾가에는 그날 주일학교 시간에 부를 찬송가,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찬송가, 182장)가 자꾸만 울려 퍼졌다.

한 버스는 내 교회 부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고, 다른 버스는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는 어린 시절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었다. 내가 연주했던 찬송가 가사는 여러 차례 내게 필요한 응답이 되었다.

리듬이 어렵고, 가사가 복잡하며, 음이 높은 이 찬송가는 제대로 반주를 해 주지 않으면 영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에 양쪽에서 버스가 왔다. 수영장으로 가는 버스는 나를 태우려고 멈췄고, 교회로 가는 버스 기사 아저씨는 멈춰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항상 그 버스를 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몇 초간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나는 이미 주님을 선택했었다. (“Who’s on the Lord’s Side?[누가 주님의 편인가?], 영어 찬송가, 260장 참조) 나는 그분께서 내가 가기를 바라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약속했고(“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참조)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도 오래 전에 했었다. (“계명을 지키라”, 찬송가, 191장 참조)

내 머리가 심장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몸은 이미 행동을 취했다. 나는 미친 듯이 마구 길을 가로지르며 반대편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손짓을 했다. 요금을 내고 교회로 향하는 그 버스의 뒤쪽으로 가면서 수영에 대한 꿈이 반대편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날 사람들은 모두 내가 영을 느껴서 울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울었던

이유는 어릴 적 꿈이 그렇게 뭉개져 버렸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안식일에 수영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전이나 그 후처럼 그 일요일에도 변함없이 내 부름을 수행했다.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마쳤을 즈음에는 이미 음악 지휘와 피아노 반주를 할 몇몇 지부 회원들을 훈련시켜 놓은 상태였다. 대학에서도 나는 계속 피아노를 연주했고 오르간 수업도 들었다. 나는 수영 경기 출전을 포기하면서 라틴아메리카로 갈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에 콜롬비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었다. 나는 그 성도들에게 음악을 선물로 남겨주고 싶었다. 콜롬비아에 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따가운 햇빛 속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와 피아노를 배웠다. 그들도 처음에는 한 손부터 시작하여 양손으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나갔고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나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치렀다.

침례를 받은 이래로 벌써 50년도 더 지났다. 나는 핀란드 내 고향을 기점으로 멀리, 넓게 다녀보았지만, 어디를 가든 찬송가 연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다. 만국 언어인 음악은 여러 곳에서 이해와 사랑의 연결 다리가 되었다.

이제 내 손은 느리며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 동안 더 많은 유능한 음악가들이 내 자리를 대신해 왔다. 어머니는 종종 내가 어릴 적 교회에 다니면서 희생하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없이 지낸

나는 콜롬비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쳤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피아노를 배우려고 뜨거운 햇살 속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왔고, 음악의 은사를 얻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

일들을 회상하면서 슬퍼하신다. 그리고 당시에 추위로 고생한 탓에 내가 관절염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런 “희생의 흔적”도 기쁘게 받아들인다. 나는 음악에 나의 기쁨과 슬픔을 쏟아 부었으며, 내 손가락을 통해 웃고 우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와 지도자들이 어린 소녀에게 것처럼 힘든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만큼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마음속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그 부름 덕분에 나는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굳건해졌으며,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영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었다. 나는 비록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새로운 개종자에게는 부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산 증인이다. 나는 내 첫 부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분의 자녀를 개개인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한 음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얻었다. ■



살아 움직이는 와드 평의회

라르네 건트
교회 잡지

후기 성도들은 와드나 지부 평의회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전합니다.



20 11년 5월 22일 밤,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대한 토네이도가 미국 미주리 주 조플린의 중심부를 강타하고 많은 가옥을 파괴하고 인명을 앗아갔다. 조플린 제와드가 토네이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크리스 호프만 감독과 와드 평의회는 곧바로 회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호프만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실제 상황이 닥치기 이전, 와드 평의회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응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영에 의지했습니다. 전력이 끊긴 상태였고 휴대전화도 먹통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죠.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회원들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묻기보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조플린 와드의 대처는 단합된 와드 평의회와 힘을 보여 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기술했다. “와드 평의회 모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권 정원회와 보조 조직 회장들이 감독단과 함께 토론하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교회의 모든 평의회와 위원회 중 와드 평의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돕는 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¹



사랑과 신앙으로 단합하다

에콰도르 정글에 고립되어 있는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 마을에는 회원들 간에 강한 사랑과 신앙의 유대감이 존재한다. 매달 갖는 지부 평의회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 보살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들은 개인과 가족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영감이 따라오게 된다.

많은 회원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부 평의회는 회원들이 겪는 문제가 지역 사회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 되었다.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며 건강상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홀어머니에게 필요한 도움을 평의회에서 논의하면서, 상호부조회 회장은 딸을 곁에 두고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해 알게 됐다.

지부 평의회는 또한 LDS 취업 서비스 진로 워크숍²과 같은 교회 자원도 접하게 되었다. 평의회는 다른 지부 회원들이 더 나은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부 회원을 교사로 지명한 공과를 개설하였다.

지부 회장단 제1보좌인 라미로 레예스는 지부 평의회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든 도구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효과적인 평의회를 위한 필수 요건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자신의 저서 *Counseling with Our Councils*에서 다음 세 가지 제언을 주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4장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다. LDS.org에서 ‘*Serving in the Church*’ 메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새로운 회원을 통합하고, 저활동 회원을 활성화시키며,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각 회원의 경제적인 상황과 홀어머니, 미망인의 필요 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평의회는 상의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지 보고하고 가르침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각 사람과 그룹이 중요하며 모든 의견이 가치 있습니다.” 개인들은 다른 시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사람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십이사도 평의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Counseling with Our Councils*(1997), 106, 109, 112쪽 참조.



성전으로 가는 길

미국 뉴욕 주 리버풀에서 멜리사 피스크는 초등학교 회장으로서 와드 평의회에 참여하면서 평의회가 가지는 힘을 깨닫게 되었다. 수첩을 꺼내려고 가방 안에 손을 넣는데, 뉴욕 주 팔마이라 성전 계단에 앉아 있는 28명의 초등학교 어린이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모두 온 몸에 말벌에 쏘인 자국이 가득했다. 사진을 보다가 피스크 자매는 사진에 잠시 마음을 빼앗겨 성전 부지에서 성스러운 느낌을 만끽하려고 팔마이라로 가서 와드 초등학교 활동의 날을 가졌던 때를 생각했다. 공교롭게도 어린이들이 돛자리를 펴는데, 말벌집을 건드리는 사고가 났다.

모두를 치료해 준 후,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성전을 만져

보라고 했다. 어린이들은 말벌이 더 출몰할까를 두려워하며 성전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래서 부모와 지도자들이 한 줄로 늘어서 성전에 다다른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어린이들은 움직여 나갈 용기를 얻었다.

다시 와드 평의회 모임에 집중하려는 동안,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만약 모두가 성전에 가기 위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도자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때, 상호부조회 회장이 도움이 필요한 한 자매에 관해 언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자매는 지난 일요일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방문 교사들에게 다가오는 성전 방문일을 꼭 알려 주라고 전하겠습니다."

원문 사진 출처: 조슈아 제이 머키

와드 평의회나 지부 평의회 참석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음 신권 역원 및 보조 조직 회장은 두 가지 자격으로 평의회에 참석한다. (1) 와드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을 감독이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와드 평의회 구성원으로서 (2) 자신이 맡은 조직의 대표자로서

감독단	와드 서기	집행 서기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	와드 선교 책임자
<p>감독단은 모든 와드 회원과 조직, 활동을 책임진다. 감독은 와드 평의회를 감리하고 적절한 경우 보좌들과 와드 평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p> <p><small>(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4.1; 4.2 참조)</small></p>	<p>“와드 서기는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정한 임무 지명과 결정 사항을 기록한다. …… 또한 교회 기록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관련 통계 정보를 출력하여 제공한다.”</p> <p><small>(지침서 제2권, 4.6.4.)</small></p>	<p>“집행 서기는 …… 와드 평의회 모임 의제를 준비한다. 감독은 또한 집행 서기에게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이 맡은 임무에 대해 확인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 집행 서기는 와드 평의회 및 신권 집행 위원회를 상호 연계하여 일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할 수 있다.”</p> <p><small>(지침서 제2권, 4.6.5.)</small></p>	<p>대제사 그룹 지도자와 장로 정원회 회장은 관리하고 있는 형제들의 영적 및 현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감독은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의 일부를 정원회와 그룹 지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small>(지침서 제2권, 7. 참조)</small></p>	<p>와드 선교 책임자는 선교 사업에 관한 와드의 노력을 조정한다. 전임 선교사와 와드 선교사와 함께 일한다.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감독은 선교 책임자에게 선교 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부탁할 수도 있다.</p> <p><small>(지침서 제2권, 5.1.3 참조)</small></p>

장로 정원희 회장이 덧붙였다. “그 자매님 가족은 현재 몇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그 일을 확인하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녀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을 거예요.” 청녀 회장이 덧붙였다.

피스크 자매는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의 얼굴에 어려 있는 진심어린 관심과 걱정을 볼 수 있었다. 피스크 자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셨구나. 바로 와드 평의회야!”

조플린,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 그리고

리버풀에서와 같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와드 평의회와 지부 평의회가 주는 축복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의회와 놀라운 힘을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사업을 완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

주

1. M.Russell Ballard, *Counseling with Our Councils: Learning to Minister Together in the Church and in the Family*(1997), 102.
2. 진로 워크숍: 반원 학습서(35163 320)은 store.lds.org, 배부 센터, 혹은 교회 취업 자원 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석자들은 와드나 지부의 개인 혹은 가족을 강화시키고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 협력한다.(와드와 감독단에 적용되는 내용은 지부와 지부 회장단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상호부조회 회장	청남 회장	청녀 회장	초등회 회장	주일학교 회장
<p>상호부조회 회장은 와드 내 18세 이상 자매들을 대표한다. 회장은 자매들이 신앙과 개인의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p> <p>(지침서 제2권, 9. 참조)</p>	<p>청남 회장은 12세에서 18세 연령에 해당되는 와드 청남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보좌들의 도움을 받아 청남 회장은 아론 신권 회장단(감독단)을 돕고, 스카우트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관리한다.</p> <p>(지침서 제2권, 8.3.4 참조)</p>	<p>청녀 회장은 12세부터 18세 연령에 해당되는 청녀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청녀 회장은 “청녀 각자가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해지도록 돕는” 책임이 있다.</p> <p>(지침서 제2권, 10.1.1.)</p>	<p>초등회 회장은 18개월부터 11세 연령에 해당되는 와드의 어린이들을 대표한다. 와드 평의회에서 와드의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에 관해 고려할 때, 초등회 회장의 관점이 도움이 될 것이다.</p> <p>(지침서 제2권, 11. 참조)</p>	<p>주일학교 회장은 주일 학교에서 모든 복음 교육을 책임진다. “주일학교 회장은 교회와 가정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향상시킬 방법에 대해 제언할 준비를 하여 와드 평의회 모임에 참석한다.”</p> <p>(지침서 제2권, 12.2.2.)</p>

여러분의 부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더 알아보려면 leadershiplibrary.lds.org에서 'Leadership Training Library(지도력 훈련 자료실)'를 방문해 본다.



로즈메리 엠 워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

듣고 이야기할 시간을 내십시오

바로 오늘 조금 더 대화를 나누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우리 가족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갓 구워 낸 초콜릿칩 쿠키와 한 잔의 우유를 간식으로 먹고, 어머니는 자녀의 하루 생활을 듣고 그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쿠키와 우유는 원하신다면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이야기할 시간을 내는” 일은 건너뛰지 마십시오.

29년 전,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께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적다는 사실에 슬픔을 표하셨습니다. 29년 전 연차 대회에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가족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말하고, 듣고, 격려하며,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입니다.”¹

우리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을 알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알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 순위, 진솔한 느낌이 각 자녀와 가지는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녀와 함께 나누기를 가장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5~7; 사체 첨가)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에든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함께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으며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투자하는 일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사는 한 어머니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시간을 만든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저는 몇 가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 공교롭게도, 그 프로그램이 자녀들이 잘 준비를 해야 할 시간과 겹치게 되었죠.

…… 어느 순간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 우선 순위에서 맨 위에 놓고 자녀들을 훨씬 아래쪽에 두어 왔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TV를 켜 놓은 채로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려고까지 했었는데, 사실 마음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TV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지난 몇 주간을 되돌아보니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TV를 꺼 놓고도 마음이 편안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주 정도 텔레비전을 꺼 놓고 지내니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더 새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²

잠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힐라맨은 젊은 용사들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더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엘마서 56:48)

젊은 용사들을 가르친 것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지속하다

대화를 하면 많은 장점이 따라오게 되며, 대적은 말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고, 듣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일할 때 가정에 임하는 영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사탄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일을 막으려는 헛된 시도를 했습니다.

조셉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5)



대적은 우리의 혀를 묶어 두고 싶어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 하려 합니다. 서로 멀어지거나 분열되면 사탄은 기뻐합니다. 그는 소음을 기뻐합니다. 무미건조한 대화를 즐겨워합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대화하며 무언가를 느끼는 것과 따스한 목소리가 주는 온화함을 없애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사탄은 기뻐합니다.

자녀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듣는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을 통해) ……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³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 각자를 위해 세워져 있는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들의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어떨까요?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간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후기 성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보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통해 입증된, 현명한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 그들에게는 궁금한 점을 묻고,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주는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보통 제가 충분한 시간을 내어 제대로 들어 준다면,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대답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동안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습니다.”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듣고, 격려하는 일은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재촉할 수도 없고 미리 계획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무슨 일을 하는 도중에 잘 일어납니다. 함께 일할 때 일어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며, 함께 놀 때 일어납니다. 대중 매체를 꺼 두고 세상적인 관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접어 두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냥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는 즐겨 보십시오. 자녀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주변으로 모든 관심을 끌어 모으고는 듣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지난 일들은 웃어 넘기시고 미래를 그려 보십시오. 별 것 아닌 대화를 하다가도 의미 있는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지난 봄, 청년 공과에 참석했는데, 교사가 반원들에게 우선 순위에 맞추어 10가지를 적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엌 서랍을 청소한다.” 목록을 다 적은 후에 청년 지도자가 써 놓은 내용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2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애비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비가 적은 목록은 이렇습니다.

1. 대학에 진학하기.
2. 실내 장식이 되기.
3. 인도에서 선교 사업 하기.
4.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하기.
5. 다섯 자녀와 가정을 꾸리기.
6.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하기.
7. “과자를 나누어 주는” 할머니가 되기.
8. 손자손녀들의 응석 받아 주기.
9. 복음에 관해 더 배우고 삶을 즐기.
10.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서 함께 살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애비. 네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 주었어.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너는 괜찮을 거란다. 네가 가는 길이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승영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애비가 영원한 목적이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애비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하는데 가족이 어떤 도움이 되었니?”

꼬마 숙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전을 읽는 것뿐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밤이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니파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이야기하고 귀 기울여 들으며 서로 격려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조금 더 대화를 나누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우리의 가족을 영원히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속죄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

2010년 10월 24일에 열린 솔트레이크시티 스테이크 대회 위성 방송에서 전한 말씀 중에서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풍요로운 가정 생활”,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67쪽.
2. Susan Heaton, “Talk Time Instead of TV Time,” *Ensign*, Oct. 1998, 73.
3. 제프리 알 홀런드, “증인이 되어”,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16쪽.
4. George D. Durrant, “Pointers for Parents: Take Time to Talk,” *Ensign*, Apr. 1973, 24.



블루베리와 몰몬경

몇 년 전,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대도시에서 살던 우리 가족은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 언저리에 있는 작은 시골 집으로 이사했다. 집 근처에 문을 닫은 블루베리 농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농장 주인의 친구를 통해 블루베리를 원하는 만큼 따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해 여름 매주 몇 번씩, 아침마다 우리는 양동이와 가방을 자동차에 가득 싣고 가서 블루베리를 거두어 맛있게

먹으며 그 시간을 신나게 즐겼다. 어느 날 아침 막내 아들 하이럼이 우리와 함께 가기 싫어하는 듯했다. 하이럼은 우리가 블루베리를 모두 다 따기 때문에 또 다시 나가봐야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어느 때처럼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찾아낸 하이럼은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다. 하이럼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곳에 여러 덩굴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미 수확했다고 믿었던 가지에서 제일

달콤한 열매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즈음, 와드 청소년 지도자들은 우리 십대들에게 8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몰몬경을 끝까지 읽어 보라는 도전 과제를 내 주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그 과제를 집에서 하기 시작했고, 식구들은 아이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가 몰몬경 읽기를 마치자마자 2005년 8월호 *엔사인*이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연말까지 몰몬경 전체를 읽어 보라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의 요청이 실려 있었다. 하이럼과 동생 조셉은 우리는 이미 선지자 말씀에

하이럼은 우리가 블루베리를 모두 다 따기 때문에 또 다시 나가 봐야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순중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형과 누나인 세스와 베다니가
물문경을 몇 번 읽었는지에 관계없이
다시 한 번 읽어 보라고 하신 헝클리
회장님의 권고를 상기시켜 주었다.

“왜 그래야 하죠?” 아이들이 물었다.
“우리는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요. 우리가 이미 읽은 것 외에 더
배울 게 있나요?”

얼마간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블루베리 얘기를 꺼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모두 다 따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다시 갈 때마다
거기엔 언제나 블루베리가 더 있었어!
언제나! 몇 번 갔었는지, 언제
갔었는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더 많은
블루베리가 넝쿨에 매달려 있었잖아.”

우리는 금세 그 비유를 알아챘다.
집 근처 농원에 열려 있는 그 풍부하고
달콤한 블루베리 열매처럼, 물문경을
발견해야 할 새로운 진리가 가득한
끊임없는 영적 자양분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물문경
내용들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거나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진지하게
물문경을 숙독할 때마다 전과 다른
통찰력을 얻으며 구주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솔른에스 와일러, 미국 조지아 주

나는 가야 한다고 느꼈다

아 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침례 받은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나를 가르쳤던 장로님들 중 한 분이 하신
“저는 형제님이 선교사임을 압니다.”라는
말이 여전히 내 귀에 메아리쳤다. 내
가슴을 파고들었던 그 느낌이 실로 참된
것인지 알기 위해 기도했을 때 받았던
강한 응답도 기억이 났다. 스무 살 때,
나는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내게 복음을 가르쳤던 그
천사 같은 젊은이들과는 많이 달랐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귀환 후에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비록 누군가의 집 뒤에 있는
작은 방이긴 하지만 그 방도 무척 힘들게
찾은 곳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의문이 다시
생겼다. 집에 도착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고심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했다. 기도를
하자 내가 슬플 때 큰 힘이 되어 주던
친구, 레이안드로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에 머뭇거렸다. 나는 그가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생각과 씨름했지만
그를 만나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다.
여전히 나는 그 생각을 무시하기로 했다.

대신에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방안에 들어선 나는 거기 앉아 있는
레이안드로를 보았다. 영이 내게 임했고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주변 근처를 걷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방문을 열어둔 채 나왔음을 기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방안에 들어선
나는 거기 앉아 있는 레이안드로를
보았다. 영이 내게 임했고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감정이 북받쳐 다소 목멘
목소리로 나는 그에게 “여기서 뭐하고
있어?”라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를 보러 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선교 사업에 대해
품었던 의문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나를 격려했다. 그리고는
내가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와 주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에 그
서류를 감독님에게 갖다 드렸다. 두 달
후에 나는 아르헨티나 살타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날 밤, 내 친구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음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의도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알고
있다. ■

엘도 파보우 모라카, 미국 네바다 주



난 죽을 거예요!

어느 날, 간호사인 나는 분주한 회복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막 수술이 끝난 빌이란 환자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중환자실로 가야 했지만 만원이라 내게로 이송되었다.

곧 환자가 가족과 함께 도착했다. 나는 그가 의식이 있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눈에 띄는 불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맥박, 혈압, 체온을 재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병실에 대해 알려준 후에 그의 차트에 기록하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 그런데 막 기록을 하려는 순간,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의 병실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록하려던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좀 더 큰 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빌의 병실로 달려가 그의 목이 두 배로 커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 경동맥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여 나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왼손으로는 그의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에게 전화를 했다. 외과의는 가능한 빨리 빌을 데리러 팀을 보내겠다고 하며 “손을 떼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계속 목을 누르고 있는 동안 나는 빌의 침대 밑에서 낫익은 교회 책을 보았다. 나는 “교회 회원이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의 의식 봉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과의는 가능한 빨리 빌을 데리러 팀을 보내겠다고 하며 “손을 떼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눈물을 참으려고 눈을 깜박거리며 “난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다음 달에 저는 애틀랜타 성전에서 결혼할 예정이에요. 당신도 거기 있을 거고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 외과 팀이 도착하여 빌을 재빨리 데리고 나갔다.

다음 달 내내 결혼 계획으로 들떠 있는 가운데 나는 빌을 거의 잊고 있었다. 빌의 경우는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결혼식 날, 메이트론이 나를 인봉실로 안내할 때, 낫익은 얼굴이 보였다. 빌의 아내 조지어였다. 나는 그녀에게 곧 내 결혼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빌을 찾으러 나갔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문이 열렸고 그가 들어왔다. 몇 주 동안 두통과 구역질과 피로에 시달린 후에 그날 빌은 성전에 와도 좋을 만큼 몸이 가뿐함을 느끼고 내 결혼식 날인 줄도 모르고 성전에 왔었던 것이다.

2년 후에 남편과 나는 테네시 내슈빌 성전에 의식 봉사자로 부름 받았다. 우리가 성별되기 위해 성전에 도착했을 때 한 신사가 문을 열어 주며 “내슈빌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빌 형제였다.

우리는 3년 동안 함께 봉사했다. 빌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기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주님께서 그를 구하셨음을 알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내게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

러모너 로스, 미국 테네시 주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9 75년 봄, 우리 가족은 서독 라인란트팔츠 지역에 있는 아름답고 푸른 농지에서 살았다. 어느 비 오는 일요일, 우리는 차를 몰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숲 가장자리에 있는, 젖은 길 위에 굴러서 옆으로 쓰러진 자동차를 보려고 멈췄다. 뺨뺨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린 데다가 밤이 다가오고 있어서 숲 안쪽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사고 차량을 살펴본 후 돌아와 보니 우리 차도 진흙탕에 빠져 있었다. 후진은 할 수 없었고 전진만 가능했는데, 그러면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전에 숲 속으로 차를 몰아 빠져 숲 속에 난 여러 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어두운 숲 속으로 전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좁고 젖은 길에는 깊게 패인 진흙 바퀴 자국으로 가득해서 차는 어두운 숲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차가 멈출 경우 진창에 빠질까 봐 속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던 중에 차 무게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견고해 보이는 높은 지점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일단 진흙 밖으로 나와서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는 요량으로 차를 그 위로 몰아 진흙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전조등이 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조등을 다시 켜고

전조등을 다시 켜고 손전등을 움켜 쥐고서 차를 살펴본 후, 최선의 방법은 숲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전등을 움켜 쥐고서 차를 살펴본 후, 최선의 방법은 숲 속으로 다시 들어가 우리가 왔던 길을 세차게 질주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최대한 숲 속으로 후진시켜 엔진 속도를 약간 올리고 도로 위로 다시 올라왔지만, 차는 진흙 속에 깊숙이 빠지고 말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차 밖은 완전히 캄캄하고 정적만 있을 뿐이었다. 차 안에는 아내와 나, 그리고 공포에 질린 세 아이가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잠시 후 아내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거의 즉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해졌다. 나는 겸손하면서도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하는

동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라.”

내가 맨손으로 뒤쪽 타이어 두 개를 닦고 체인을 감는 동안 아내는 안식일 복장을 한 채로 25센티미터 깊이 진흙 속에 서서 손전등을 비쳐 주었다. 우리는 신명과 확신을 지니고 다시 한번 기도한 뒤 시동을 걸었다. 우리는 서서히 진흙 속을 달려 결국 포장도로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진흙과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흥분에 휩싸여 나는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숲 속에서 나왔는지를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다섯 살 난 딸이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도를 들어 주시네요, 그렇죠?” 하는 말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 스코트 에드거, 미국 유타 주

블랙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호 노우라 '블랙[Bleck]' 보넷에게 농구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블랙은 열다섯 살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떠오르는 별로, 그 나라 최상위 성인 부문 최고 팀에서 활약하는 최고 선수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별명이 영어 black[블랙]의 철자를 잘못 쓴 것이긴 하지만, 재능에서만큼은 실수란 것이 없었다.

하지만 블랙은 그 이상을 원했다. 그는 유럽에서 프로 선수로 뛰고 싶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남태평양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었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듯이 보이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교회였다.

임무를 띠고서

당시 블랙이 소속된 팀은 교회에서 후원했으나 그는 교회에도, 그리고 모든 합당하고 자격 있는

청년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선지자의 요청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블랙은 이미 감독님에게도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을 포기한다면 프로 선수로 뛴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4년마다 열리는 남태평양 경기는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열릴 것이고, 타이티 농구 연맹에서는 그를 국가대표팀으로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에는 블랙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즉 “블랙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하지만 그 녀석이 금메달은 못 딸 거야.”라는 말씀에 중지부를 찍을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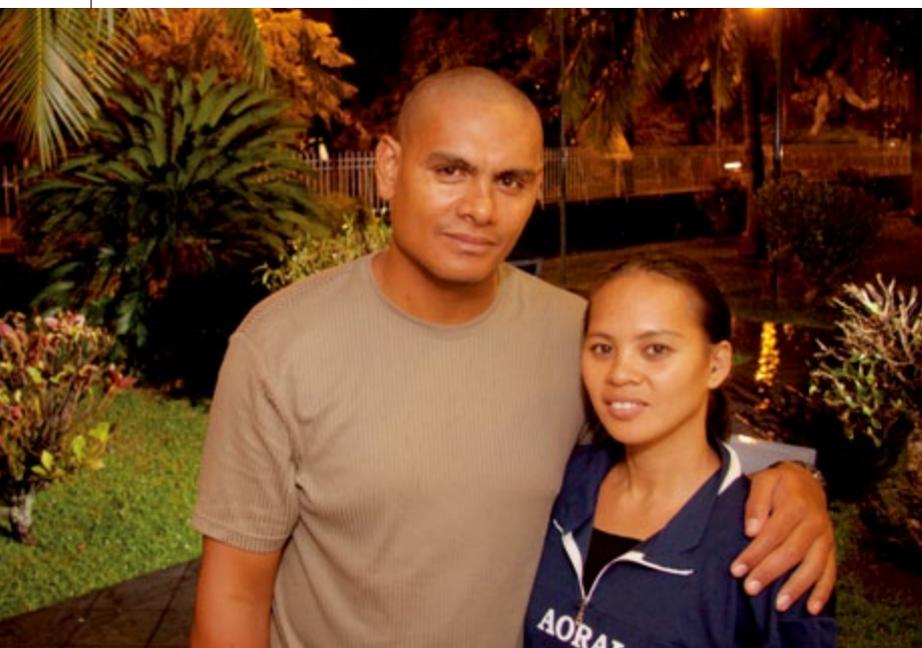
블랙의 아버지인 진 뱍티스테는 악의 없이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블랙은 속이 뒤집혔다. 그것은 타히티 전국에 있는 농구 팬들이 그를 알고 있었지만 경기에서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블랙의 아버지는 제1회 남태평양 경기에서 남자 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었다.

그런 말을 잠재우는 것이 블랙의 임무였고, 그 밖에 다른 임무를 수행할 시간은 블랙에게 없었다.

생각과 마음에 일어난 변화

블랙은 자신이 선교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 없이 여전히 교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열여섯 살 때 교회 무도회에서는 용기를 내어 미란다 마리테라지에게 춤 신청을 했다. 미란다 역시 금메달을 따겠다는 꿈을 지닌 유능한 농구 선수였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최초로 메달을

호노우라 '블랙' 보넷과
미란다 보넷은 타히티에서
오랫동안 농구를 해 왔다.





블랙이 농구에 대해 품은
애정은 시험이자 동시에
축복이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 때 …… 행복은 찾아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7쪽.

획득한 팀의 일원이었다.

블랙이 미란다에게 춤 신청을 하고 몇 초도 안 되어 노래가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노래가 나오는 동안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그 무도회의 마지막 곡이었다. 블랙은 그대로 춤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블랙이 성전 결혼, 혹은 그것을 위해 회원과 결혼한다는 것은 계획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2년이 넘도록 미란다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런 계획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란다의 집에 있던 블랙은 그녀가 청년 반에서 만든 어떤 것을 보고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거기에는 “나는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블랙은 미란다에 대한 관심과 성전 결혼에 대한 그녀의 굳은 결심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결심은 성신이 그의 삶에 임할 수 있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결정

그런 결심 중 하나는 열여덟 살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다. 축복사가 축복을 주면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할 것이라는 말을 할 때,

블랙은 영을 느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어요.”라고 블랙은 말한다.

국가대표팀에는 메달을 딸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블랙은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선수로 뛰라는 압박은 컸다. 그러면서 블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여러 번 시험받게 될 것임을 이내 알게 되었다.

블랙이 타히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한지 일 년이 지나자 농구 연맹에서는 그에게 딱 한 달만 팀으로 돌아와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렇게 할 경우 블랙이 다시 돌아와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염려한 선교부 회장은 영감을 받아 그에게 “원한다면 떠나게.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세.”라고 말했다.

블랙은 메달을 따고 싶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가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니었다. 그의 선교 사업은 놀라웠다. 그는 농구를 포기하면 했지 선교 사업의 마지막 한 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블랙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팀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다른 상황, 동일한 결정

블랙은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마친 후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에서 미란다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며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을 재개했다.

미란다는 여자 국가대표팀에서 득점을 끌어내는 포인트가드로 뛰면서 남태평양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경기는 일 년도 채 남지 않아서 미란다가 경기에 나가는 기간만큼 둘째 아이 갖기를 미루기는 쉬웠을 것이다. 그 여자 팀은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따를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가족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정했다.

1999년, 미란다가 임신 8개월째 되던 시기에 여자 국가대표팀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블랙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블랙과 미란다는 십 년이 넘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최상위 팀원으로 농구를 하며 전국선수권대회와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03년과 2007년 경기 동안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다.

2011년 경기에는 두 사람이 모두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블랙이 남자 팀 코치 자격으로 나왔다. 미란다가 소속된 여자 팀은 금메달을 땀지만, 남자 팀은 동메달에 그쳐 또다시 금메달을 차지하려는 블랙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블랙은 이따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대신 자신이 원했던 것을 했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금메달을 땀겠죠. 어쩌면 프로 선수로 뛰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 부부는 그들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성전에서 결혼했어요.”라고 블랙이 말한다. “저에게는 멋진 아내와 예쁜 네 자녀가 있고,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농구 하나만으로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로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둔 결과로 얻게 된 축복이랍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 아버지의 놀림을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몇 년 전 농구 연맹은 리그 경기 일정을 일요일로 잡는 것을 고려하던 중, 클럽 회장들이 만나 그 문제를 논의했다. 누군가가 “블랙에게 물어보았나요?” 하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의는 거절되었다.

블랙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블랙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

블랙과 미란다에게는 운동 경기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족 안에서 이루는 성공이 더 중요했다.

“혼자서도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세미나리에 가야 하나요?”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혼자서 경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훌륭한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이 세미나리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훌륭한 교사의 지도를 받아 배우고 공부하면 여러분이 예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성구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또한 여러분이 경전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선지자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리에서는 반원들과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 친구들은 어떤 특정한 성구를 좋아하게 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성구들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가지 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보라, 거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6:32)

여러분은 또한 세미나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진도에 따라 읽도록 권유 받는데, 그렇게 하면 경전의 각 부분을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구 익히기 구절을 토론하고 암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이 시점에서 그 어떤 방법보다 세미나리에 참여함으로써 경전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세미나리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가족처럼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알지 못할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세미나리는 재미있고 매우 영적입니다. 여러분은 세미나리에 참여함으로써 하루를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미나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커트리너 비, 16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행복



저는 저의 하루를 세미나리로 엮니다. 세미나리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더 즐겁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의 더 세부적인 부분도 토론하므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디 에스, 15세, 미국 콜로라도 주

완전한 조합



세미나리는 사람을 고양시키는 경험입니다. 가끔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 학습과 세미나리는 완전한 조합입니다. 교사들은 놀라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이 있다면 교사와 반원들이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도슨 디, 15세, 미국 아이다호 주

더 많은 이해



제가 성스러운 경전을 혼자서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때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함께 경전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를 통해 저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배웠고, 경전의 배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으며, 이런 점들 때문에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리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레베카 엠, 16세, 독일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강한 간증



첫째, 주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
18:20; 교리와 성약 6:32

참조) 세미나리 수업에서 그분의 영을
느낌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면
경전에 기록된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지식을 나눌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간증이
강화됩니다. 세미나리는 간증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간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미나리 덕분에 우리는
올바른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지, 16세,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저에게는 세미나리에
가는 것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헌신적인
교사가 경전에 있는
진리들을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반원들과 하는
토론에서도 아주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제가 복음과
구주 및 그분의 속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 토론에서 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미나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제 간증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벤틀 제이, 15세, 웨스턴 사모아

빛과 진리



저는 세미나리에 가서
빛과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습니다.(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그 감주는

제가 어느 곳에서든 항상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하는 경전
공부는 제 신앙과 간증을 강화시켜 주며
제가 시련에 굳건히 대처하도록 도와
줍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은 빛과
진리를 찾고 경전을 공부하며 숙고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에미 엠, 17세, 멕시코 푸에블라

세 가지 이유

첫째,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기
때문에 세미나리에 참석합니다.
선교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는
머리가 맑으므로 학습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혼자서
공부하면 교사가 가르치는 것만큼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에이치 쉐 유안, 16세, 타이완 타이청



**세미나리의
축복**

“저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힘을 압니다. 그

힘을 통해 제 삶은 풍요로워졌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될 것이며, 여러분을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서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거룩한 것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교회의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진리를
받음”,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61~62쪽.

다음 질문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를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2년 5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liahona.lds.org, liahona@ldschurch.org

Liahona, Questions & Answers 5/12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왜 세미나리입니까?

세미나리에 참여하십시오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이해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전을 사랑할 줄 알게 됨에 따라 주님의 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가고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세미나리에 참여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교사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운 것을 적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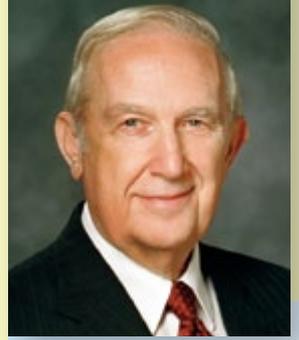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세미나리에 참여하십시오”,
seminary.lds.org.

여러분은 학생이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무리의 세미나리 학생들이 교회 교육 기구 총감이신 칠십인 정원회의 폴 브이 존슨 장로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참된 간증입니다. 참된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은 성신에게서 우리 개인의 영혼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진리이며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원 높은 교육은 여러분이 받는 다른 교육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A Higher Education,” *New Era*, Apr. 2009, 15)

존슨 장로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함으로써 얻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씀하신 많은 총관리役員들 중 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미나리에 가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더 훌륭한 이유를 들어 보십시오.



행복과 성공을 위한 토대를 놓으십시오

“세미나리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청남 혹은 청녀로서 인생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토대를 놓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지금
선교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8쪽.





세미나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을 알아보십시오

“세미나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청소년들이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청소년들은 신앙을 나누고 경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은 간증을 갖고 있는 교사와 함께 있게 되므로, 간증을 할 때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이 경전에 관심을 갖게 해 줍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11쪽.

복음의 진리를 배우십시오

“저는 모든 소년 소녀가 세미나리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리는 많은 소년 소녀들이 앞으로 그들이 할 일에 대해,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데 대해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도와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 “김볼 회장님께서 선교사가 되라고 전하심,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0쪽.



세미나리를 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학생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가르침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서 부가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는 선택 과목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등록했으면 참석하고,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친구들도 똑같이 하도록 설득하십시오.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자유 의지와 통제,”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104쪽.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이끌어 내십시오

“저는 교회 세미나리 조직과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Dec. 1995, 67.

세미나리 졸업생이 되십시오

“정기적으로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졸업하도록 하십시오. 세미나리의 가르침은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 깊은 영적인 경험이 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 “주님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8쪽; “To the Young Women of the Church,” *Ensign*, Nov. 1986, 82.





에콰도르 정글 속 세미나리

세미나리는 먼 정글에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에콰도르 키토의 동쪽은
화산들과 안데스 산맥을 지나
아마존 정글로 지형이 급격히
바뀌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울창한
삼림과 많은 강들, 원숭이들, 큰부리새들
및 분홍색 돌고래까지 볼 수 있다.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드 오렐라나라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 에콰도르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15년 전에는 그 지역에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산업이 발전하면서 구직자들과
교회 회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작은 지부에서 열리는 세미나리

오스카 알과 같은 몇몇 청소년들은
지부가 조직되었을 때 이미 회원이었지만
대부분은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은 교회에 대한 열성으로
가득하다. 오스카는 “우리는
강해요.”라고 말한다.

지부가 조직된 지 꼭 1년이 된 2010년
9월에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오스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 모여서 시작할 무렵에는
회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청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발전해서 곧 여섯 명이 되었고, 그
다음엔 열 명, 지금은 더 많은 수로
불어났어요.”

일부 청소년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오후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까지, 두 개의 세미나리
반을 만들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미나리는 그 수업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왜 갑니까?

최근 개종자인 루이스 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게는 세미나리가 큰
축복이에요. 세미나리를 통해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어려움과 유혹에 직면했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을 굳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건 루이스만이 아니다.
아리아나 제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불과 얼마 전에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침례 받은 이후로 세미나리에 꼭 참석해
왔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참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에콰도르에서는 이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세미나리를 통해 강화되며,
그들 중 다수가 최근에 개종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한다. 항상 쉽지는 않지만
에콰도르, 푸에르토 프란시스코 드
오렐라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세미나리가 노력할 가치가 있다.

아벨은 이렇게 설명한다. “경전에서
나오듯이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의미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미나리는 이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세미나리가 제 삶을 바꿔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청소년의 삶도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가장
깊숙한 정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리 프로그램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선택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

행복합니다. 제 마음은 희망으로 차고
머리는 이해로 가득 찹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함으로써 아리아나는
복음 안에서 정착할 수 있었다. “이런
수업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정말 축복이에요. 이 수업들은 저의
영을 강화시켜 주고, 제가 훌륭한
배우자와 어머니, 교회 지도자가 되고,
어쩌면 전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헤라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제게 새롭지만 전 정말
행복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만날 기회를 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 이
확신을 받았어요. 노력하면서 끝까지
견딜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터 에이는 처음에 세미나리에
대해 약간 겁을 먹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왔을 때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경전을 공부할
때 느끼는 그 사랑을 느꼈죠. 교실을
떠날 때는 제가 배운 것으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세미나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소년을 위해 마련하신
커다란 축복 중 하나입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아벨 에이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제 삶을 바꿔
놓았어요. 저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를
사랑합니다. 그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용감하고
싶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아리아나는 말한다.

아리아나의 오빠인 헤라르도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가 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세미나리는 제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미나리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수업에 참석하면서 제가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라르도는 가끔 수업 도중
매우 피곤할 때가 있다. 그는
먼저 남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준 다음, 함께 세미나리에 갈
여동생을 데리러 재빨리 집으로



세미나리 다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미나리 졸업은 종교 수업의 끝이 아닙니다. 아주 멋진 것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여러분은 세미나리에서 정기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또래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곳에서 환영을 받고 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리를 마치면 이런 경험들도 끝나게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교회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 계속 배우고,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준비하고, 또래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교 교육원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institute.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은 경전,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교 사업 또는 성전 결혼 준비에 관한 수업을 포함한 여러 복음 수업들로 구성됩니다. 그중 일부 종교 교육원에서는 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석할 수 있나요?

모든 청년 독신 성인들은 종교 교육원 수업에 참석하도록 강력히 권고를



종교 교육원에 관한 정보

학생 수: 35만 명 이상

지역 수: 2,500곳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강좌 수: 기본 과정 15개, 기타 몇몇 선택 과정

최초의 종교 교육원이 세워진 곳: 미국 아이다호 주 모스코우(1926년)

미국 및 캐나다 외에 첫 종교 교육원이 세워진 곳: 멕시코(1959년)

종교 교육원의 목적: 청년 독신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자신과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데 있다.

받습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만 18에서 30세인 성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 교육원은 어디에 있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단과 및 종합대학교 근처에 종교 교육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교회 건물이나 기타 장소에서 수업을 합니다.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에게 연락하면 여러분 지역에서 하는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또는 institute.lds.org에 접속하여 가까이에 있는 종교 교육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종교 교육원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사귀게 되고, 영을 느끼게 되며, 신앙은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여 열심히 경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은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힘이 커질 것임을 약속합니다.”(institute.lds.org, 2009년 4월 21일) ■



조지아 에디스·채움원 작사

디모데후서 3:16~17

사도 바울은 경전이 어떻게 우리 삶을 축복하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할 때, 우리는

경전을 탐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새로운 시각과 귀로 경전을 보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구명 빛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거룩한 경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26~27쪽.

선한 일

경전은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확실하게 도움이 될 몇 가지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지에 기록해 보십시오.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 (정원회나 반 회장단과 같은) 교회의 부름 완수하기
- 복음 가르치기
- 간증하기
- 복음 나누기
- 교회에 관해 질문하는 친구에게 답변해 주기

바르게 함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단어는 본래 “다시 곧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전은 여러분이 곧고 좁은 길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41 참조)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책망

책망—보통 부드러운 방식으로 질책하거나, 벌하거나, 꾸짖거나,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능력을 갖추게 하다—장비를 갖춘, 충족된.



교훈(교리)

“참된 교리란 이해되기만 한다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교리에 대한 연구는

행위에 대한 연구가 행위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빨리 행위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9쪽.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추락은 안 돼

작은 문제를 지금 고쳐서 나중에 생길 큰 문제를 예방하자.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영적 점검



“우리는 우리가
항상시켜야 할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작은 결점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우리는 영과 교회 지도자,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Elder Marcos A. Aidukaitis of the Seventy, “Honesty in the Small Things,” *Ensign*, Sept. 2003, 30.

안 드레이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무척 좋아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을 꿈꾸지만, 안드레이의 마음은 구름 속에 있지 않다. 그의 관심은 볼트와 너트에 있다. 루마니아에 사는 이 열여섯 살 소년은 항공정비사가 될 공부를 하고 있다.

루마니아 십대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업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안드레이는 비행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항공직업학교에 다니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렸다.

항공정비사는 고장 난 비행기를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하는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비행기가 고장 나지 않도록 검사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프로펠러에서부터 착륙 장치와 그 사이에 있는 각 부품에 이르기까지 비행기의 모든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제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겠죠.” 하고 안드레이는 말한다. “하지만 그걸 찾는 게 비행기 전체를 다시 조립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일을 빼먹지 않는 것은 비행기나 교회 회원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래야 기계적이든 영적이든 생명을 위협받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정비

안드레이는 약 2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부쿠레슈티에 산다. 그러나 루마니아에 교회가 들어간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부쿠레슈티에 있는 회원들은 지부 두 개를 구성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안드레이 가족은 그들 지부 회원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 안드레이는 학교나 친구들, 온 주변 세상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낀다. 그는 자신이 정기적으로 영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영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잘 안다.

삶은 바쁘기 마련이다. 안드레이는 학교 공부와 축구, 컴퓨터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도 기도, 금식, 경전 공부, 제사로서 맡은 책임을 수행할 시간도 낸다. 또한 세미나리에 “가는” 것도 반드시 하는 일이다. 거리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이런 일들은 영성이 치명적인 추락으로 이어지기 전에 결함을 찾아 고칠 수 있는 정기적 영적 정비의 일부이다.

안드레이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목숨을 앗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한다.

영적 추락

우리가 정기적으로 영적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나 또래 압력과 같은 힘이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제압할 수 있음을 안드레이는 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곧 방향과 자제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힘을 잃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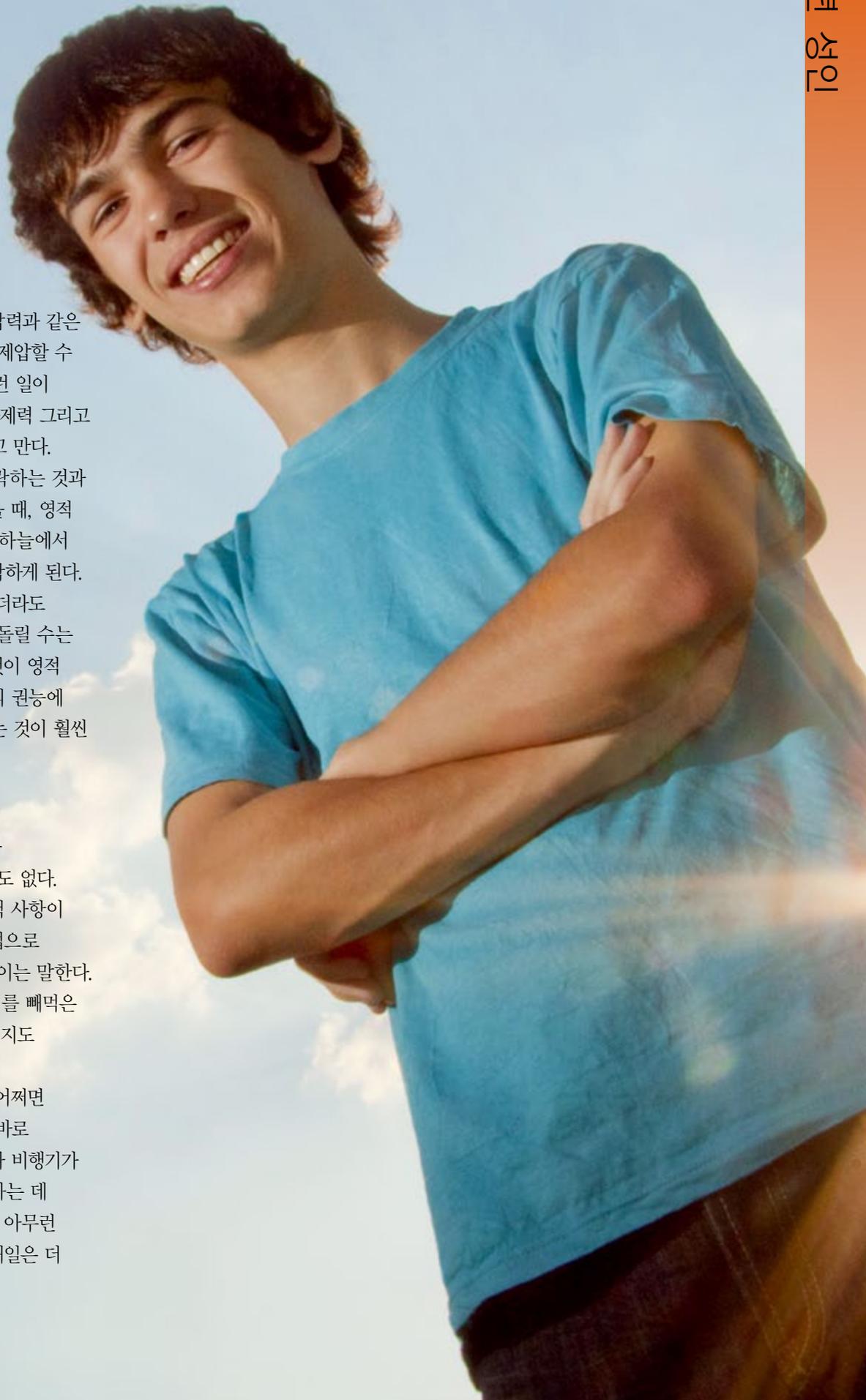
동력이 없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영적 힘을 잃고 고지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추락한다 하더라도 구주의 속죄를 통해 다시 되돌릴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작을 때, 그것이 영적 파멸을 일으키기 전에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건너뛰는 위험

안드레이는 비행기 정비를 빼먹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정비를 건너뛰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고 안드레이는 말한다. 하지만 만약에 딱 한 번 정비를 빼먹은 경우라면 “아마도 별일 없을 지도 모르죠.”라고 그는 인정한다.

정비를 건너뛰는 이유는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비행기가 곧바로 추락할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제가 오늘 빼먹었는데 아무런 불상사도 생기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쉽게 건너뛰고 싶어질 거예요.” 하고 안드레이는 말한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 즉 우리에게 가해지는 강압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고장이 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추락하게 되죠.”라고 안드레이는 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기적으로 영적 정비를 하는 것에 관한 율법을 주신 이유이다. “자주 함께 [교회에] 모[이라.]”(제3니파이 18:22; 사체 첨가) 항상 기도하라.(제3니파이 18:19 참조)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라.(제3니파이 23:1~5 참조)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교리와

성약 121:45; 사체 첨가)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라!

이런 율법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영적 정비를 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비행기는 땅을 이륙하여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려는 곳, 즉 하늘로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죠.”라고 안드레이는 말한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참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고린도후서 13:5)

영적 정비 점검표

항 공정비사는 종종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이 나와 있는 점검표를 갖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영적 점검을 해 보라고 권고했다! 다음은 여러분이 수시로 영적 건강을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다. 여러분의 응답 중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과 이야기한다.

- 나는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가?
- 나는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흡족히 취하는가?
-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가?
- 나는 금식을 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기꺼이 내는가?
-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 나는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는가?
- 나는 구주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가?
- 나는 깨끗한 생각과 말을 하는가?
- 나는 모든 것에서 정직한가?
-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가?

주
1. 조셉 비 워스런, “진리에 참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17쪽 참조.

경전을 탐구하라

세미나리를 통해 변화하십시오.
(니파이전서 19:23 참조)

사진: 신화, 케리, 헨리, 앙숙의 몸에 도착한 리비아와 그 일행. 아놀드 프리버그 © 1951, R.R. & P. 판권하는 형제들을 진압하는 문장
니파이, 아놀드 프리버그, 교회 역사 박물관 승인 아래 인쇄. 노아 왕 앞에 선 아민아다오, 아놀드 프리버그 © 1951, R.R.



이야기 시간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힐러리 워킨스 레몬
실화에 근거

“**애** 들어, 이리 오렴. 이야기 시간이란다.”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조시는 하루 종일 이야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조시와 두 동생, 벤, 웨스는 엄마 아빠와 같이 거실에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밤 아빠는 조시의 아침 발표 대본 연습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발표문을 읽는 것은 조시의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내일 조시가 좋아하는 노래의 일부가 학교 스피커로 울려 퍼질 것이고, 조시는 마이크로 활동 계획과 점심 메뉴를 발표할 것입니다.

조시는 대본 연습 생각에 들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와, 우리 유명한 아나운서께서 오시는군요!” 조시가 바로 옆 소파로 짱충 뛰어오르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내일 방송할 준비는 됐니?”

“기다려지긴 하지만 조금 떨려요. 전교생 앞에서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란다. 자, 어서 원고를 읽어 보거라. 어디 고칠 데가 있나 내가 들어 볼 테니.”

“아빠, 고마워요.” 조시가 대답했습니다.

조시는 아빠와 몇 번인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원고를 검토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가족 앞에서 마지막으로 대본을 낭독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갈채를 보내셨습니다. 벤은 하이파이브를 해 주었고, 웨스는 싱긋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조시는 자신감과 기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학교 스피커에서 자신의 음악이 나오자 빙긋 웃었습니다. 아빠와 같이 원고를 연습해서 실수 없이 또박또박 대본을 낭독한 것이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했어요.” 블레이크 교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서 조시는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상급학년 남학생이 돌아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오늘 발표문을 읽은 아이니?”

조시는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런 노래를 골랐지?” 소년이 물었습니다. “형편없는 노래였어. 네가 아침 발표 시간을 완전히 망쳤다고.” 뒤이어 그 아이는 조시를 놀리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웃었습니다.

조시는 버스 앞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웬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조시가 집에 돌아 왔을 때, 엄마는 웨스와 놀아 주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직 이야기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조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조시. 무슨 일이 있니? 아침 발표가 잘못됐니?”

“아네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나더러 멍청한 노래를 골랐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를 심하게 놀리기까지 했어요.”

엄마는 와서 앉으라며 마룻바닥을 두드리셨고 조시는 그리로 가서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조시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조시와 엄마는

블레이크 교감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 모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빠들이 너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했더니 유감이구나. 하지만 블레이크 선생님처럼 네가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은 네 발표에 무척 기뻐했던 것 같은데? 아빠와 엄마도 조시가 정말로 자랑스럽단다. 너는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보람이 있었어!” 엄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시가 다시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조시는 언제라도 이야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마음을 열어 놓은 솔직한 의사소통보다 가족간의 관계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3쪽.





함께 이야기하기

우리 가족 “이야기 시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날마다 가족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씩 내 주시도록

부모님께 부탁해 보세요. 식사 시간이나 기타 다른 시간도 좋습니다.

- 반드시 모든 식구들이 말하고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모두 다

참여합니다!

- 가족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식구들 각자가 자신이 한 말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대화 놀이

“이야기 시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가요? 이 놀이를 해 보세요.

콩 주머니 돌리기: 식구가 너무 많거나 차례를 정하기가 어려우나요? 그렇다면 콩 주머니를 써서 누가 말할 순서인지 정해 보세요. 콩 주머니를 받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서, 다른 식구에게 콩 주머니를 던져 주며 차례를 정합니다.

인터뷰: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차례로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진행합니다. 여러분 짝에게 물어볼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두었다가 실제로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진짜 마이크나 녹음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로 끝나는 여러 질문을 가족에게 차례로 합니다. 가령,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도움말: 일대일 시간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겁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일대일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 시간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자녀와 만날 시간을 찾아보십시오. 한 번에 한 아이를 불러서 집안 일을 도와 달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갈 때 함께 가거나 여러 분 방에서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짝막한 몇 분이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패트릭 키아론
철십인 정원회

“그들은 사망의 줄을 끊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갖느니라.”(모사이사서 15:23)

자 녀들이 어렸을 적, 하루는 밤에 가족 경전 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주에 대해 읽었고 어떻게 그분이 전혀 잘못을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내는 세 살짜리 딸, 수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엄마, 예수님은 잘못을 하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뭔가를 깨뜨렸어요.”라고 수지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다소 어리둥절해하며 “그분이 무엇을 깨뜨렸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렸어요.”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수지와 함께 초등학교 노래, “황금빛 봄날”을 여러 번 불렀고 수지가 “황금빛 봄날, 예수님은요 잠자던 무덤 깨뜨리고 살아나셨죠!” 란 가사를 배웠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잠자던 무덤을 깨뜨린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후에 모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화를 계기로 아내와 저는 딸들인 리지, 수지, 그리고 에머에게 속죄가 우리 각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수지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언젠가 우리는 불멸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주

1. “황금빛 봄날”, 어린이 노래책, 57쪽.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태 너에게 이번 부활절은 예전과 다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태너는 더 이상 이 특별한 절기를 할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어 슬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태너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영은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을 몸과 영원히 결합하였습니다. 태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부활절 노래를 부르는 태너에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노래하라

주를 찬양하라.” 태너는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기 전, 이웃집 현관문 앞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구를 꽂은 봄꽃 다발을 놓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들이 부활절 아침에 태너의 선물을 받고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

주
1.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어린이 노래책*, 44쪽.



노래와 성구

- 요한복음 13:15
-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
- *어린이 노래책*과 *리아호나* 실린 몇 가지 노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44쪽), “주님 다시 사셨나요?”(45쪽),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2005년 4월호, 친13쪽)

인물 삽화: 시디니 블로카; 그림: 폴 만 © 1999 P&A, 오른쪽: 그리스도와 동문경의 어린이들, 맨 위: 부활, 해리 앤더슨 © 1985; 부활, 해리 앤더슨 © P&A; 이따위를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존 스킵트 © P&A; 강림, 해리 앤더슨 © P&A; 세관주에 나타났신 그리스도, 아들도 포리버그 © 1991 P&A; 내 손과 발을 보라, 해리 앤더슨 © P&A; 기쁨을 가져오라, 게리 웨일 펄 © 1988; 복서 금지; 너희는 노아가 모든 나라를 가르치라, 해리 앤더슨 © P&A

정의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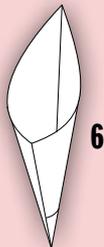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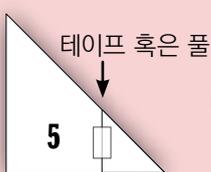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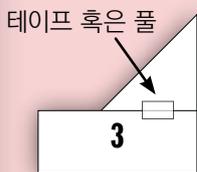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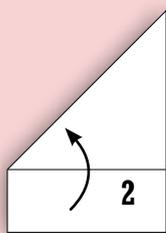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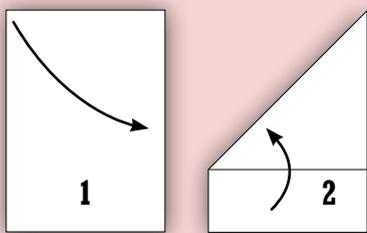
어느 지역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백성뿐 아니라 미대륙에 있는 의로운 백성도 방문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각 그림이 설명하는 일이 일어난 지역(예루살렘 혹은 미대륙)과 그림을 연결해 보세요.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차례대로 경전을 읽어 봅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도 태너처럼 자신만의 부활절 꽃다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백지나 색지를 가지고 다음처럼 만들어 보세요. 고깔을 꽃이나 간식으로 채워서 친구나 가족을 놀라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
제3니파이 17:11~25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요한복음 20:14~18



예수님께서 미대륙에서 가르치시다
제3니파이 11:8~11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다
사도행전 1:9~11



예수님께서 의로운 백성에게 나타나시다
제3니파이 11:1~8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 주시다
누가복음 24:36~40



예수님께서 니파이 백성의 기록을 살펴보시다
제3니파이 23:7~1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마태복음 28:16~20

미대륙





주 예수를 답으려고

쉽게 편곡한 노래

결의를 가지고

♩ = 104-116

작사 및 작곡: 제니스 캡 페리

1. 주 예수를 답으려고 주 길을 따
(2. 나) 이 웃을 사랑하려 내 친구를

라 가 리 주 님 처 럼 나 도
도 우 리 주 님 께 서 다 시

모 든 이 웃 사 랑 하 리 라 그
올 때 기 뻘 으 로 맞 으 리 주

© 1980 by Janice Kapp Perry.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모든 복사본에 본 문구를 포함시켜야 함.

혈연과 신앙으로 맺어진 자매들

헤더 위클리
교회 잡지

마리아 우르수와 다이애나 디는 평범한 자매들이 아닙니다. 둘은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다이애나는 열 살이고, 마리아는 지난 8월 열두 살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약 3,000명의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두 자매는 교회에 가고, 경전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배웠어요.” 시험을 보던 날,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자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몰몬경이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몰몬경을 읽으면 하루를 잘 보내게 돼요.” 다이애나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조셉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기도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조셉을 도와 주셨어요.” ■



초콜릿

두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후식은 초콜릿입니다. 마리아는 브라우니를 좋아하고, 다이애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마리아와 다이애나 모두 피아노를 칩니다. 마리아가 좋아하는 노래는 “서로 사랑해”입니다. 이 노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관한 노래입니다. 다이애나는 그 곡을 거의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최대 난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전을 보고 싶어요

마리아와 다이애나는 모두 나중에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둘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적절한 나이가 되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은 약 805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마리아와 다이애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엄마는 우리 기분이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우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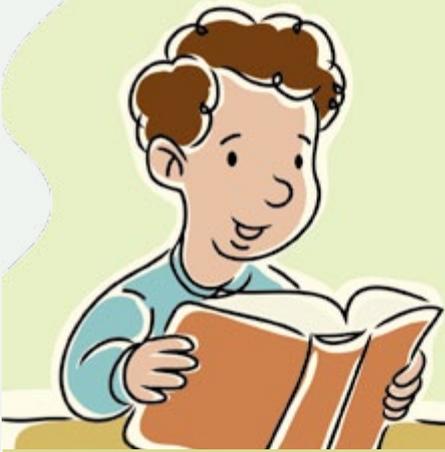
찬송가

다이애나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입니다. 그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루마니아에 사는 회원들은 걸 표지가 초록색인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루마니아어로 “Imnuri”는 “찬송가”를 뜻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께서 이 주제에 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경전을 공부하여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 배우세요.



현대와 고대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서 오는 마음속 느낌을 따르세요.



필요할 때,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에게 조언과 인도를 구하세요.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의 일부,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73쪽.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음악만을 듣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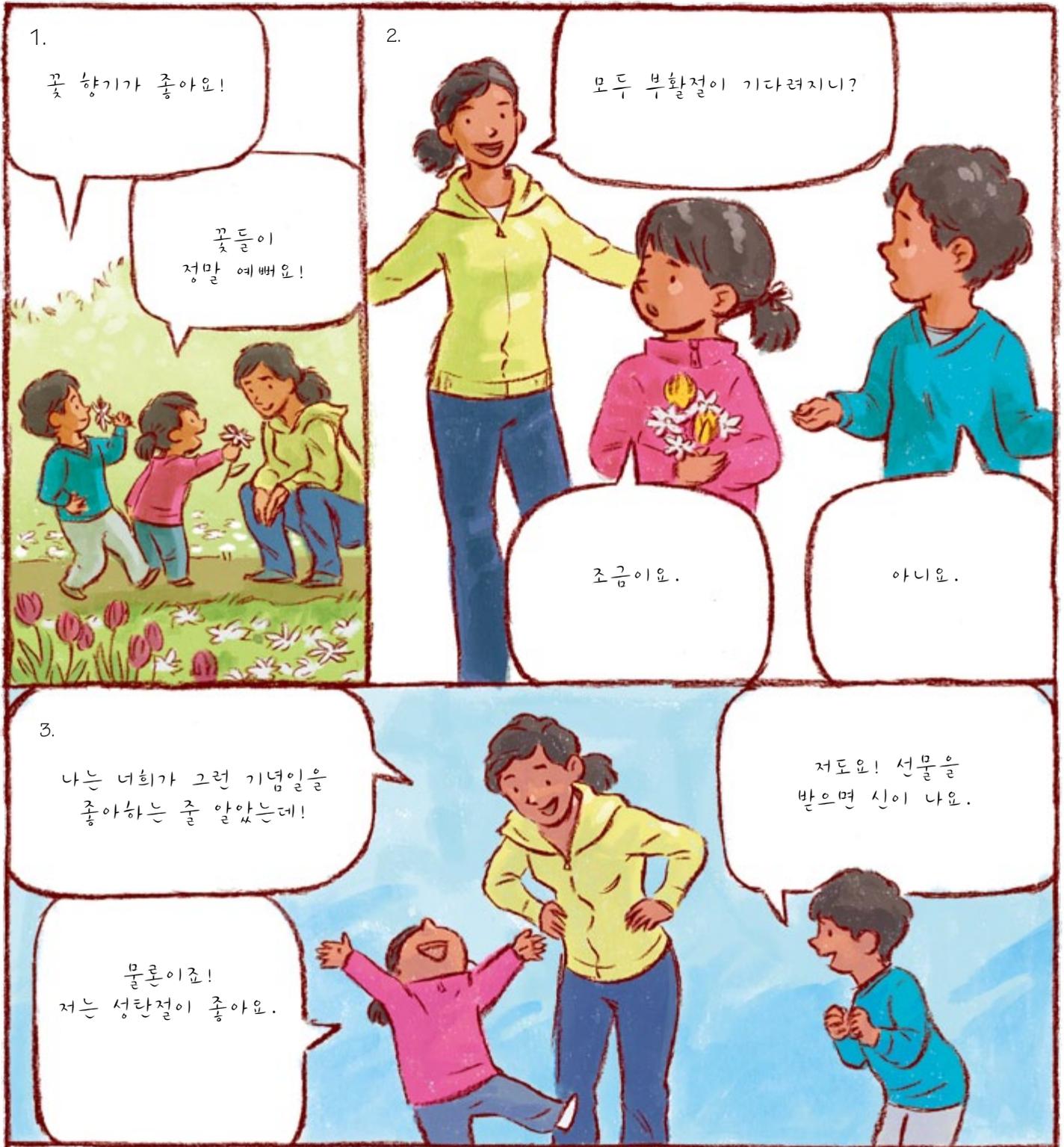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며,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

부활절의 기쁨을 느끼다

실화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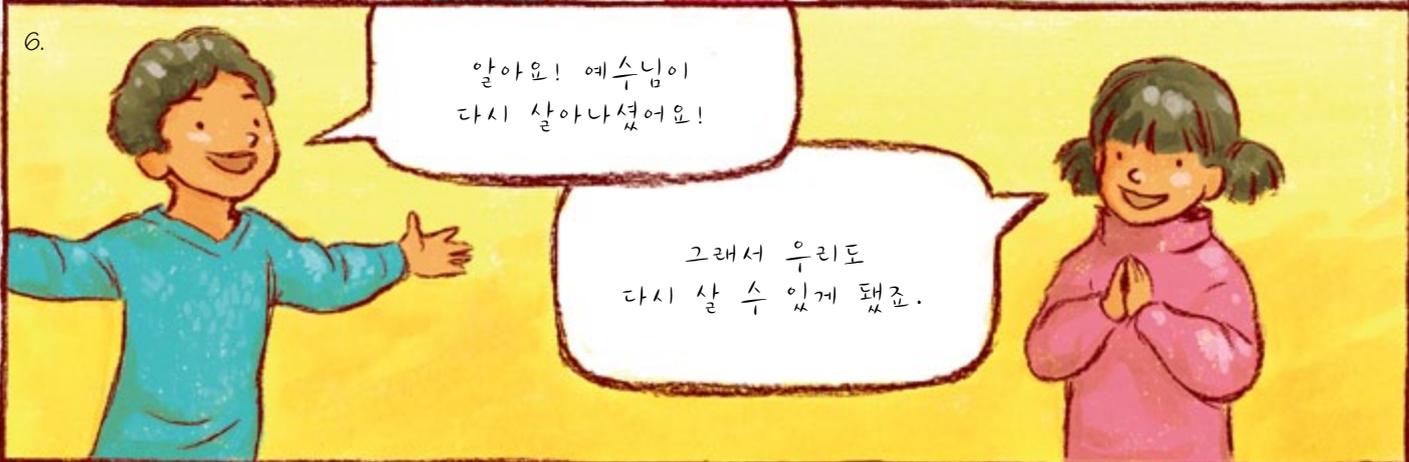




4. 부활절은 왜 신이 나지 않을까?

부활절은 슬픈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를 기억하는 때잖아요.

5. 부활절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6.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게 됐죠.



7. 맞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복한 날이란다.

8. 이제는 부활절이 좋아요.

저도요.

부활절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날을 특별한 장소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장소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보기 위해 발자국을 따라가 보세요.

2.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기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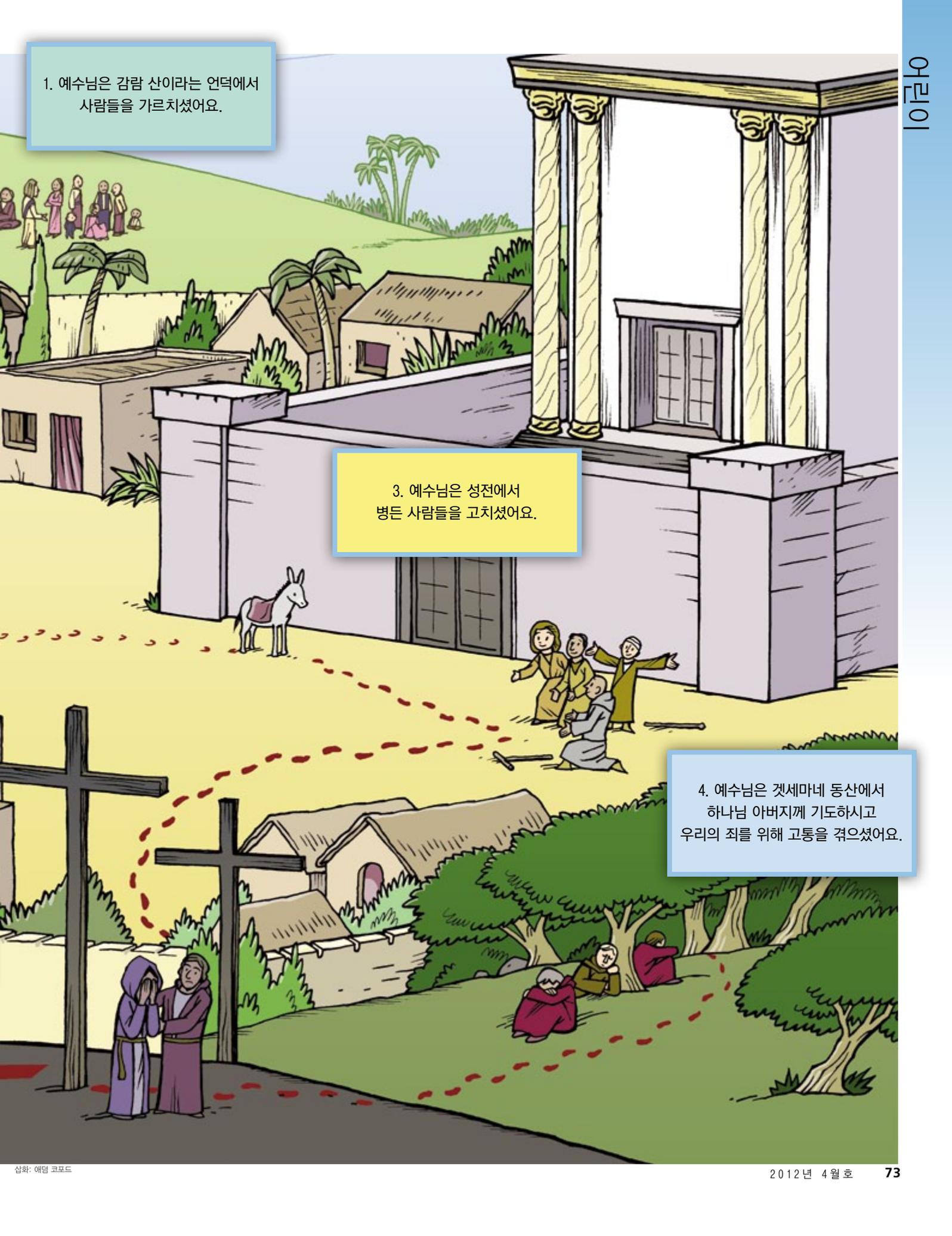
6.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5.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 예수님은 감람 산이라는 언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3.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4.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어요.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실질 성장으로 이르는 길을 강조하다

헤더 휘틀 위클리

교회 소식과 기사

20 12년 2월 11일에 방송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실질 성장”의 중요성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칠십인 회장단, 그리고 교회 보조 조직 회장단들이 함께 모여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침을 주었다.

“교회 용어에서 성장은 ‘새로운 회원’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 성장은 ‘활동 회원 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라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설명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러드 장로는 “복음으로 개종하는 일생에 걸친 과정을 통해 각 개인과 가족이 더욱 충실해질 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더욱 충실해진다 하는 것에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일들, 이를테면 매일 하는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가정에서의 사랑, 속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이 포함된다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말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름답고 간결한데 우리는 곧잘 그것을 끝없이 세세한 기대치 목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목적에 집중할 때 대부분의 혼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날 방송은 대체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핵심 교리와 원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왜’라는 질문을 제대로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결혼과 가족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교회는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드와 스테이크는 가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집중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실질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패커 회장은 모든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에서 신권을 사용하여 가족을 의롭게 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권 지도자들은 합당하게 교회를 이끌어야 하며, 신권 내의 직분이 다를지라도 모든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교리와 성약 1:20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과 회개와 기도로 맺어진 관계를 통해 가족을 성공적으로 강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넬슨 장로는 또 이렇게 말했다. “신성한 경전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라고 세 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 경고는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지 않은 가족들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승영을 위한 이 의식들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영생과 승영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와드, 지부, 나아가서 교회 전체가 실질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한다.



복음의 적용

실질 성장과 개종은 복음을 매일의 삶에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질의응답 토론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복음을 적용하는 가장 높은 단계는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약에 순종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도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은 복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지도자들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은 회원 개개인은 물론 교회 전체가 지닌 책임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주저 없이 다른 종교 및 봉사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신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하지만 회원과 선교사들도 힘써 도와야 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가족을 돌보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을 강화하며 청소년이 신앙과 간증을 쌓도록 돕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벨라드 장로와 닐 엘 앤더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본부 청년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그리고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로즈메리 엠 워쇼프 자매가 함께했다.

래스벤드 장로는 모든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다시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으며,

2012년 2월에 방송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패널 토론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말씀하고 있다.

2월에 방송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 우리가 들은 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지도자들에게 훈련 모임 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 이후 각자의 부름에 봉사하면서 늘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권유했다.

1. 모임에서 배운 지침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평의회 차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왜” 봉사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다.
2. 깊이 숙고하고 토론한 후,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한다. 이 같은 실천 사항들은 각 조직, 와드, 스테이크, 가족,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
3. 이 같은 다짐을 한 후에는 평의회 모임 때마다 자신의 책임과 부름 내에서 이 다짐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확인하고 점검한다.

앤더슨 장로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을 재활동화시키고 강화하는 데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 성장을 이룸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실질 성장은 우리가 복음 원리를 일상 생활에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왜’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와,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평의회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했다.

더 알아보기

lds.org/study/other-addresses에 접속하여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을 클릭하면 여러 언어로 된 방송을 시청, 청취, 인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기사 모집

리아호나는 여러분의 성탄절 전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여러분의 가족은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합니까?
- 여러분의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전통은 무엇입니까?
-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과 가족은 어떤 전통을 세웠습니까?
- 기억에 남는 성탄절 추억, 특히 그런 전통과 관련해 생각나는 경험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을 2012년 6월 1일까지 리아호나 팀에게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주십시오.

BibleVideos.LDS.org: 세상에 주는 선물

20 11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주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성경 비디오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Biblevideos.Lds.org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천사의 방문에서부터 구주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생애 여러 장면을 묘사한 짧은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이 사이트를 발표했다.

“경전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 짧은 영화들이 여러분에게는 단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성신을 통해 가히 세상을 바꿀만한 이 사건들을 보면서 감동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 자료들은 유타주 고센에 새롭게 설립된 LDS Motion Picture Studio South Campus(후기 성도 영화 제작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2011년 8월부터는 ‘New Testament Scripture Library Project(신약전서 경전 자료실 프로젝트)’를 위한 촬영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는 100개 이상의 짙막한 영상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모바일 기기로도 볼 수 있으며, 영어(BibleVideos.Lds.org), 스페인어(videosdelabiblia.org), 포르투갈어(videosdabiblia.org)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무료 아이폰 앱 애플을 통해 보고 듣고 만져봄으로써 성경 이야기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성경 비디오 자료(The Life of Jesus Christ Bible Videos) 웹사이트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하는 약 100편에 달하는 신약전서 비디오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젠슨 장로가 아르헨티나에서 회원들을 가르치다

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칠십인 회장단의 제이 이 젠슨 장로가 아르헨티나 살타에서 청소년, 청년 성인, 신권 지도자, 선교사,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또한 남미 남부 지역의 회장인 머빈 비 아놀드 장로와 그의 아내 데보나, 지역 칠십인인 루벤 스피탈레 장로, 그리고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아내 캐시와 젠슨 장로의 아내 로나도 참석했다.

약 1,300명의 청소년과 부모들이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젠슨 장로가 말씀한 이 노년의 모임에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전역에 있는 70개의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10,000명의 회원들이 이 모임을 방송으로 시청했다.

이전에 남미 남부 지역 회장으로 봉사한 젠슨 장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간증드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했다.

젠슨 장로는 우리에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자 특권인 선택의지가 있으며 그 결정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말씀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젠슨 장로는 또한 자신과 아내가 결혼을 미루어 자신이 젊은 시절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하며 그 친구 이야기와 대조했다.

“귀환하자마자 저희는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성약을 맺은 우리는 평생 동안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음 연사인 크리스토퍼슨 자매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을 전했고,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모임을 마무리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랑과 신앙입니다. 우리의 결혼, 가족, 직업, 고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계명은 우리 삶에서 방향을 제시하며 정말 중요한 것을 얻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그런 후 그는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오는 권고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권했다.

사진 촬영: 제임스 달링턴



그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부모들도 똑같은 원리를 지킨다는 것을 알기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약 50년 전에 자신이 봉사했던 아르헨티나의 회원들에게 사랑을 표하며 모임을 마쳤다.

살타에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젠슨 장로는 지역 선교사들과 청년 독신 성인들도 만났으며 그들에게 총관리 역원의 사랑을 전했다. ■

현대 사도들의 성역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읽으려면 LDS.org에 접속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클릭한다.

2011년 11월 초에 아르헨티나 레지스텐시아 선교부의 선교사들에게 말씀하는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젠슨 장로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은 2011년 12월 11일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헌납했으며, 교회의 136번째 성전이다.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 헌납식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감리로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이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에 헌납되었다. 세 번에 걸친 모임으로 이루어진 헌납식은 성전 구역 내의 교회 회중들에게 방송되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토요일 문화 행사에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이 성전은 보석과도 같은 광채를 발하며, 실로 이 나라, 이 지역의 보석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 지역 회중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춤과 노래로써 그 지역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었다.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은 전 세계에서 136번째 성전이며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다섯 번째다. 약 60,000명의 후기 성도들이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브라질에서 일곱 번째 성전 기공식을 갖다

2011년 11월 15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브라질에서 일곱 번째 성전인 브라질 포르탈레자 성전 기공식을 감리했다.

“이 성전은 이곳 그리고 이 부지에 와서 거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질 성전 때문에 이 도시는 항상 더 나아질 것이며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베드나 장로는 말했다.

포르탈레자 성전은 브라질 세아라, 포르탈레자에 있는 아베니다 산토스 두몬트에 세워지게 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0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브라질 포르탈레자 성전 건축을 발표했다.

■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콘서트가 수천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다

2011년 12월 18일, 푸에르토리코의 다섯 개 스테이크 회원들은 카구아스 시의 파세오 데 라스 아르테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참석했다. 약 85명의 회원들이 공연했으며 대략 2,5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아프리카의 세 번째 청년 성인 센터

2011년 11월 4일, 남아프리카 소웨토 스테이크의 청년 성인들은 청년 성인 센터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지어진 신축 건물에서 첫 활동을 가졌다.

유럽 전역에는 140개 이상의 청년 성인 센터가 있으며 미국에도 몇 개가 있다. 소웨토에 건립된 이 센터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세워졌으며, 다른 두 개는 콩고 민주 공화국과 짐바브웨에 있다.

독특한 접근법이 질문을 야기하다

2011년 10월 9일, 러시아 니주니노브고로드에서는 종이 두루마리 활동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는 선교 활동이 펼쳐졌다.

몇 시간 동안,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분주한 거리에 놓인 두 개의 테이블에서 펠트펜으로 각자가 품고 있던 질문을 적었다. 종이 두루마리에서 총 84개의 질문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던 선교사들에게서 답을 듣고 싶어했다.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나침반

리아호나는 제 삶의 등불입니다. 리아호나와 함께라면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교회 잡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회장인데, 아이들에게 리아호나에 소개된 또래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리아호나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나침반이며 사탄의 함정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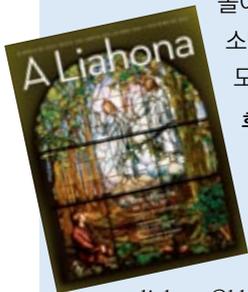
야나 이바비브나 다비덴코, 우크라이나

위안을 안겨주는 경험들

리아호나의 메시지와 기사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면서도 저는 종종 일과 중에 잠시 멈추고 다른 회원들의 인생 경험을 나누어 주는 리아호나 기사를 읽습니다. 이 기사들은 언제나 제가 영적인 위안을 찾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호아오 카를로스, 브라질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출하신 내용은 명확한 표현과 분량 조절을 위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세미나리의 축복”, 20쪽: 미리 이 기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가족에게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자녀가 세미나리에 등록한 청소년이라면 세미나리가 왜 중요한지 먼저 물어본다. 그런 후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부분을 읽는다. 더 어린 자녀들에게는 나이가 되면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격려한다. 세미나리 연령대의 청소년이 없다면 이 기사를 읽은 후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세미나리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토론할 수 있다.

“블렉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42쪽: “의의 일하세”(찬송가, 177장)를 개회찬송으로 부를 수 있다. 블렉에 관한 이야기를 읽거나 요약해서 들려준다. 가족들에게 여러 갈림길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인지, 그 결정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인용문을 읽고 마친다.

간결하고 조용했던 하지만 잊지 못할 가정의 밤

어린 두 딸인 여섯 살 안젤리크와 네 살 베서니와 함께 잊지 못할 가정의 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피곤한 나머지 둘 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아이들이 먼저 가정의 밤 임무 지명 회전판을 이용해 각각의 할 일을 정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모임의 사회를, 둘째는 음악을 맡았고 저는 활동, 첫째는 공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둘째인 베서니가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를 골랐고 우리는 함께 불렀습니다. 남편의 개회기도가 끝나자 첫째인 안젤리크가 가장 최근 리아호나를 가져와서는 어린이란의 기사 하나를 골랐습니다. 첫째 딸은 학교에서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영은 그 아이가 읽고 있는 것이 참됨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게임을 했으며 제가 폐회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영과 사랑 그리고 이 어린 두 영들로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은 그 성스러운 책임의 일부입니다. ■

실비 푸생, 레위니옹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속죄에서 얻는 소망

저는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가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고 용서가 자신이 붙잡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이 의미하는 바를 내면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의 깊이와 권능과 범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스물한 살 된 어느 형제와 접견을 하여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한지를 알아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보통 총관리 직원들은 예비 선교사와 접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견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제가 접견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배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은 심각한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러한 배경을 지닌 사람을 만나도록 요청받았는지 의아해하며, 제가 그를 선교사로 승인하도록 추천하는 것은 가장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접견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잘생기고 용모가 뛰어난 청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꽤나 문제가 많은 그 스물한 살짜리 청년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의 청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기다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있는 그 사무실에서 저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제가 형제님과

소망은 속죄에
대한 지식과
간증뿐만 아니라
속죄의 개인화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접견을 해야 합니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차례대로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그는 자신이 거쳤던 단계들과 고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무한한 속죄의 권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구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겻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과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치신 희생이 저와 같은 사람도 구조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영으로 감동을 받은 저는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봉사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 교회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로부터 삼사 개월이 지난 후, 에즐리 자매와 저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모임이 끝날 즈음 저는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얼굴이 익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약간 당황한 저는 “미안합니다. 기억해야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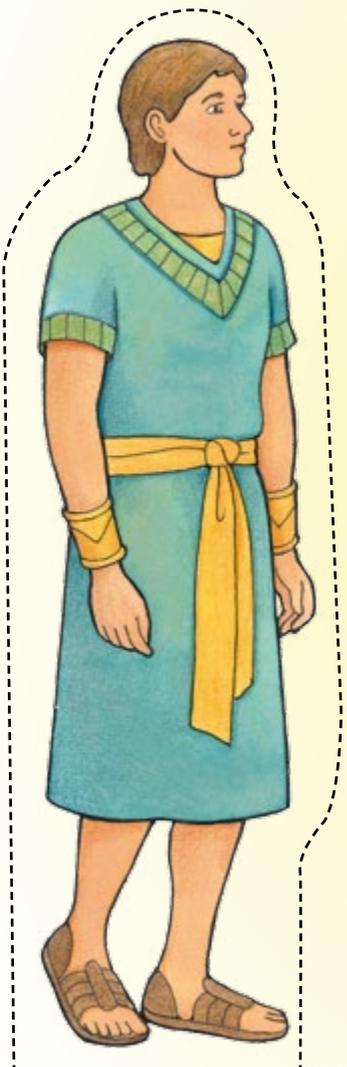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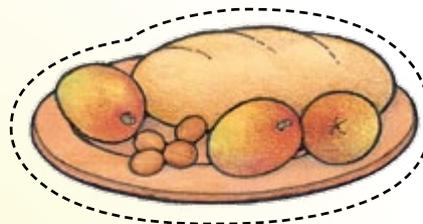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청년의 소망은 속죄에 대한 지식과 간증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서 생겼습니다. 그는 속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속죄의 권능을 알았으며, 모든 것을 잃거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속죄를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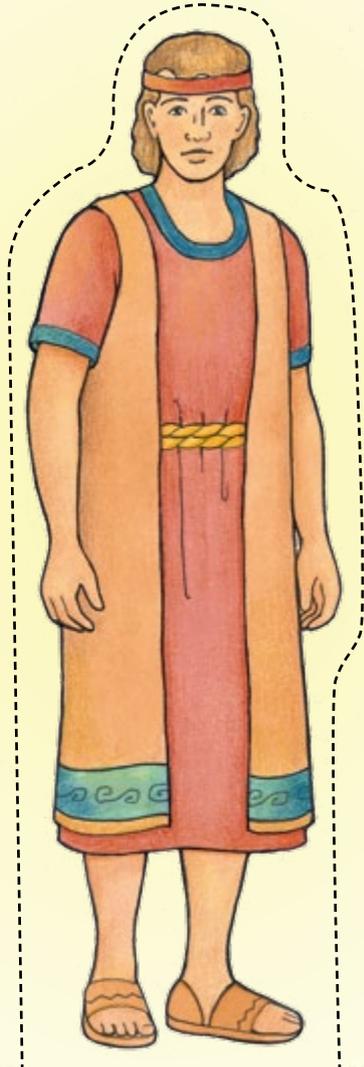
2008년 11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함. 전문을 영어로 보려면 speeches.byu.edu에 접속한다.

붙

해 리아호나 여러 호에는 몰몬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각 인물을 잘라내어 두꺼운 종이나 판지,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십시오.



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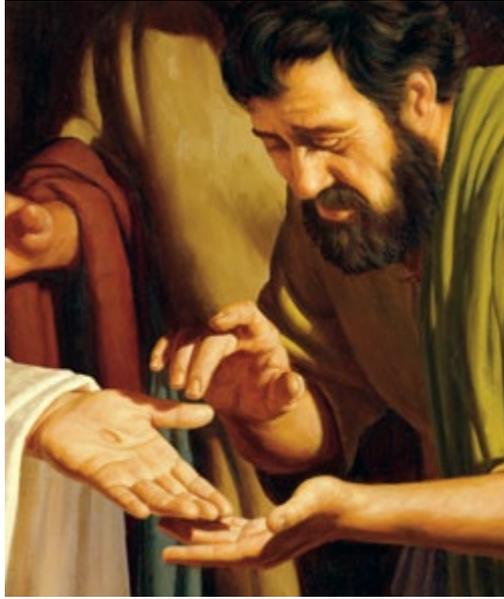


엠울레크



지에즈롬

엠몬아이하에서 엘마와
엠울레크가 한 선교 사업
엘마서 8~14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약해졌을 때 이렇게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이해하랴, 어느 누가 알아줄까?’ 어쩌면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하게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앞서 우리 짐을 지시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분은 최후의 값을 치르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완벽하게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자비의 팔을 내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손길을 뻗어 어루만지거나 구원하며, 말 그대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여정과 속죄”, 12쪽 참조.